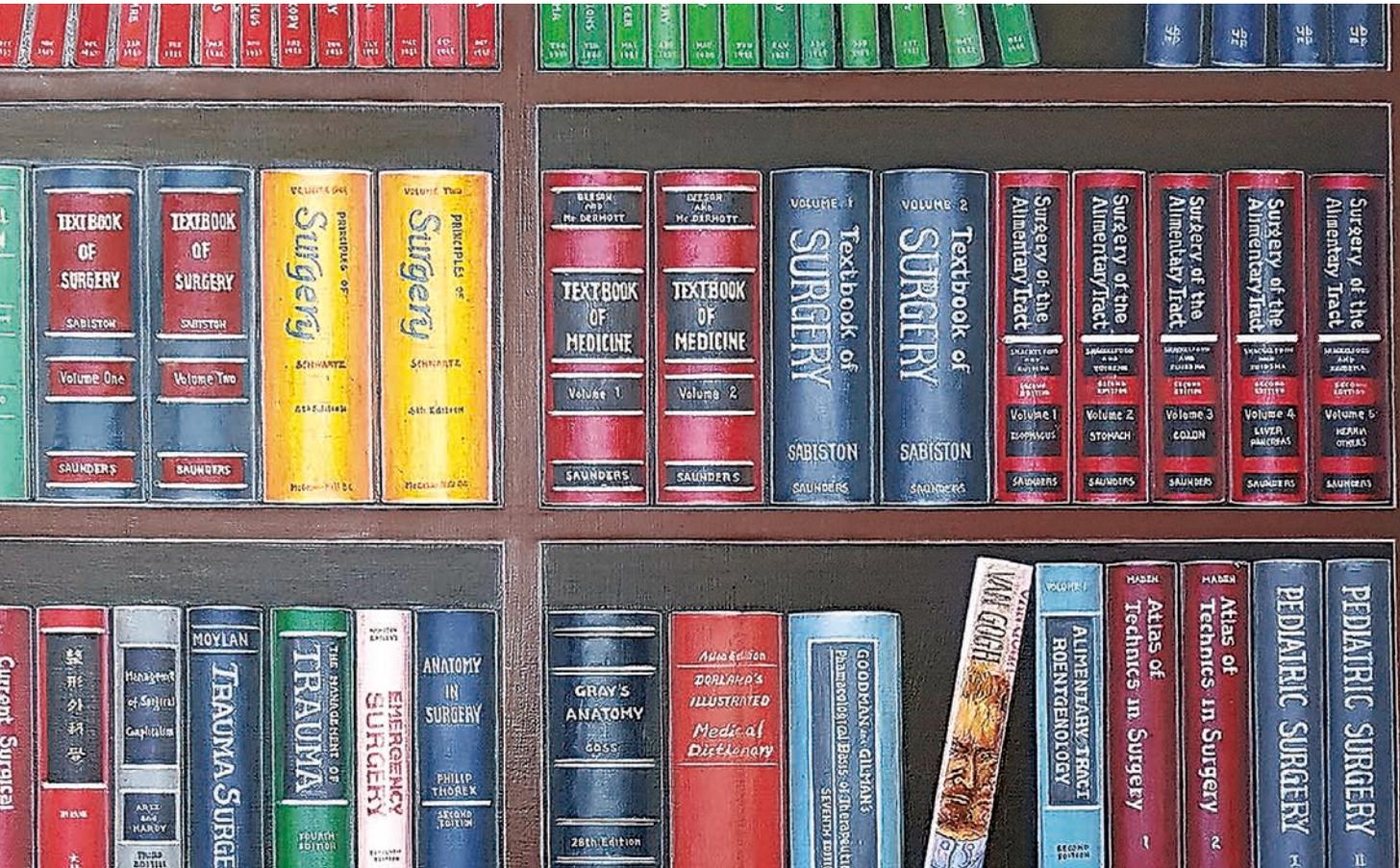


본 인쇄물은 2022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2 ANNUALLY 제38호

속초문화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원

이제 알겠다

지난밤 비바람에 벚꽃이 갔다

열흘도 못 앓을 꽃자리 찾아
겨울을 건너온 여리디여린 것들

잠시 머물다간 생의 자리라서
빈자리는 저렇듯 서늘한 걸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초록색 알전구 안부처럼 켜놓고
마실 가듯 제 집으로 돌아간 꽃

그 자리가 내 자린 줄 이제 알겠다
비우고 채우는 생의 꽃자리

내 자리가 그 자린 줄 이제 알겠다



최 명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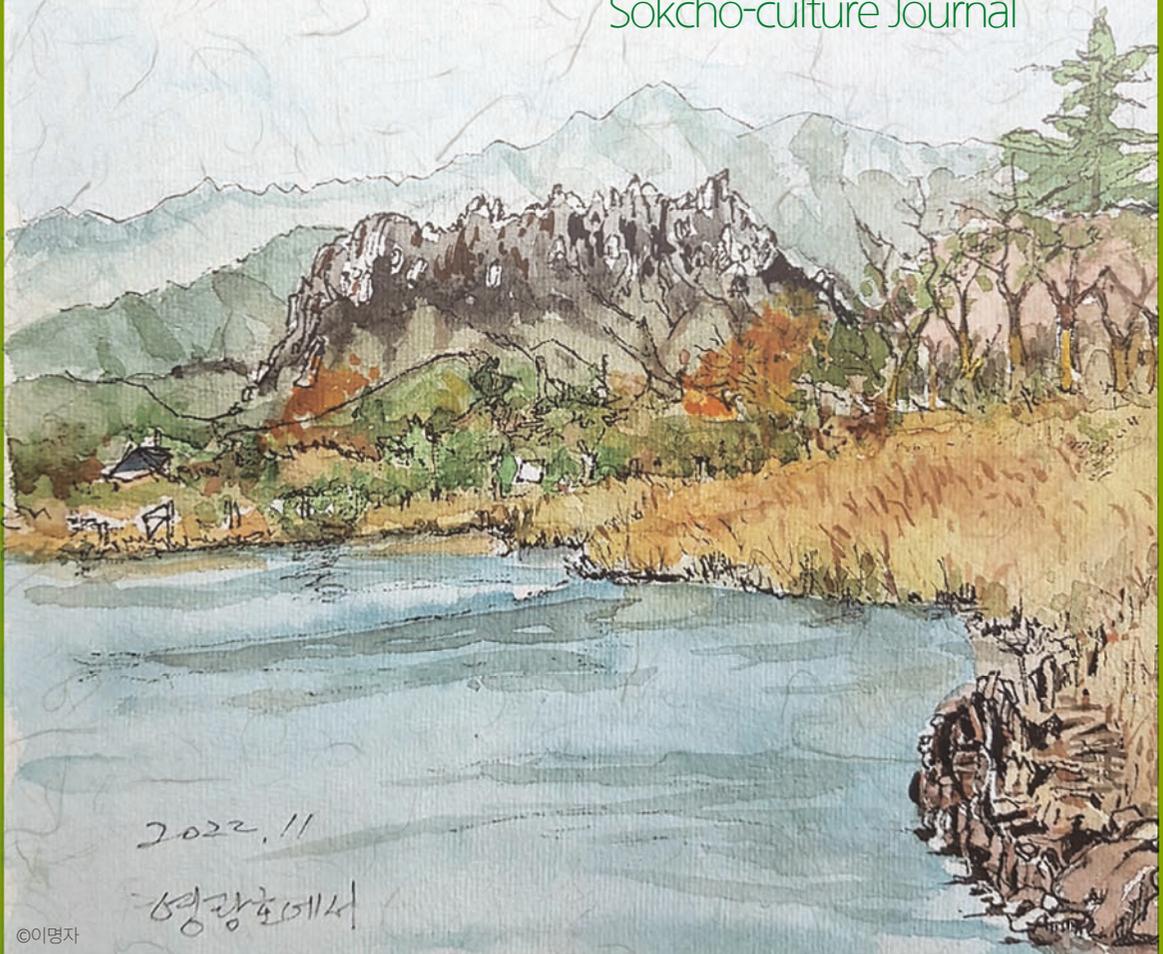
등단: 월간『문학세계』
시집: 『기억, 그 따뜻하고 쓰린』 『말랑한 경문』 『환승의 이중 구조』
현, 속초문인협회 부지부장



소초문화

2022 · 제38호

Sokcho-culture Journal



2022. 11

성광문화예총서

©이명자

CONTENTS

002 권두시 이제 알겠다 - 최명선

006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008 **지상갤러리**

시간 - 권정아

어울림 - 고주리

우리들의 이야기 - 어영옥

올망졸망반달이 - 이진향

몽환속에 속초바다와 속초아이 - 강영진

운무 속 울산바위 - 유홍균

내일을 기대하며 - 최희재

017 **속초문화원 365**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사업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사업

신종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속초돈돌리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책장

표지작품 김봉수

속초문화

제자 해풍 김광희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2022 학교문화 예술교육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실향민속제 부스운영

『2022 어르신문화프로그램』

038 중등학생용 속초학 안내서 발간 사업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발간 사업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속초시지 발간사업

2022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040 2022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041 속초학 연구

042 「대포의 기적」을 번역하며 - 김재환

049 평생교육에서의 지역학 교육의 위상과 과제 - 양용석

063 『속초시지(束草市誌)』 편찬방향 및 활용방안 - 이상수

077 ‘속초’ 지명의 음운론적 고찰 - 최재도

097 표지작품 책장 - 김봉수

(우)24821 속초시 번영로 155
TEL.(033) 632-1231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퍼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양용 석
진 행 : 김은 중, 전 욱, 김덕영
발행일 : 2022.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지로 자리매김... 「속초문화」



「속초문화 제38호」 발간을 준비하며 지난 한 해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들을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되며, 일상의 안정을 찾아가는 다행스러움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다양하게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이 더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속초학 연구」가 독립적인 장으로 다루어진 점이 이번 속초문화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입니다. 올해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가 새로 설립되어 기존 향토사 연구에 국한되었던 연구 활동이 속초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속초문화원의 변화 중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초학 연구」라는 새로운 장이 「속초문화 제38호」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역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일시 중단했던 수료·전시·발표회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치를 수 있었으며, 연간 사업인 「속초 도시변천사」 역시 세 번째 출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 미래무형문화유산 - 속초돈돌라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속초시 승격 60주년, 속초시지 편찬 사업」 역시 새롭게 시작된 주요 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속초학 안내서 발간 사업」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속초에 대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는 기반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속초문화 제38호」에 담아보았습니다. 애써주신 집필진, 임원진 여러분, 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속초문화원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지로서 「속초문화」가 자리 매김하고, 발전과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속초문화원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속초문화원 원장 김 계 남





시간 · 30cm×30cm · 디지털 캘리그래피



권정아

-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졸업
- 속초미술협회 지부전 2019-2022
- 현, 속초교육문화관 주/야간 캘리그래피 강사, 고성교육도서관 캘리그래피 강사, 양양교육도서관 캘리그래피 강사
- (사)한국미술협회 정회원 및 속초미협 정회원



어울림 • 50.0cm×60cm • 섬유 복합재료



고주리

- 대한민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모전(청주예술의전당)
- 서울미술대상전(서울시립미술관 경희공분관)
- 서울여류화가협회전(인사아트센터) 아트인 강원전
- 남북 코리아 여성 오늘전(국회의원 회관)
- 글로벌GAF북경전, 강원아트페어참가(춘천,원주,강릉)
- 동북아시아 지방정부미술교류전,프랑스 파리 코코전
- 2021,2022조형아트페어(삼성코엑스) 국내외 단체전 다수
- 개인전13회, 속초시 문화상, 강원 미술상 수상
- 현재 : 강원도미전 초대작가, 아트인강원 회원, 서울여류화가회 회원.



우리들의 이야기 • 80.3cm×116.8cm • 아크릴



어영옥

- 개인전 2회
- 신사임당 미술대전 추천작가
- 국립산악박물관 기획초대전 등 단체전 다수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올망졸망반달이 • 30×50×105cm • 스크레치기법



이진향

- 계명대학교 의생활학과 졸업
- 한지공예 작품 개인전(22년)
- 한지공예 개인전(21년 한지생활을 담다)
- 신사임당 미술대전 (최우수상, 입선) • 대한민국한지대전 (특선)
- 한국중이공예공모대전 (특선) • 국제전통예술대전 (특선)
- 현, 속초교육문화관, 속초문화원, 속초평생교육문화센터, 양양평생학습관 한지공예 강사
(사)한국미협 속초지부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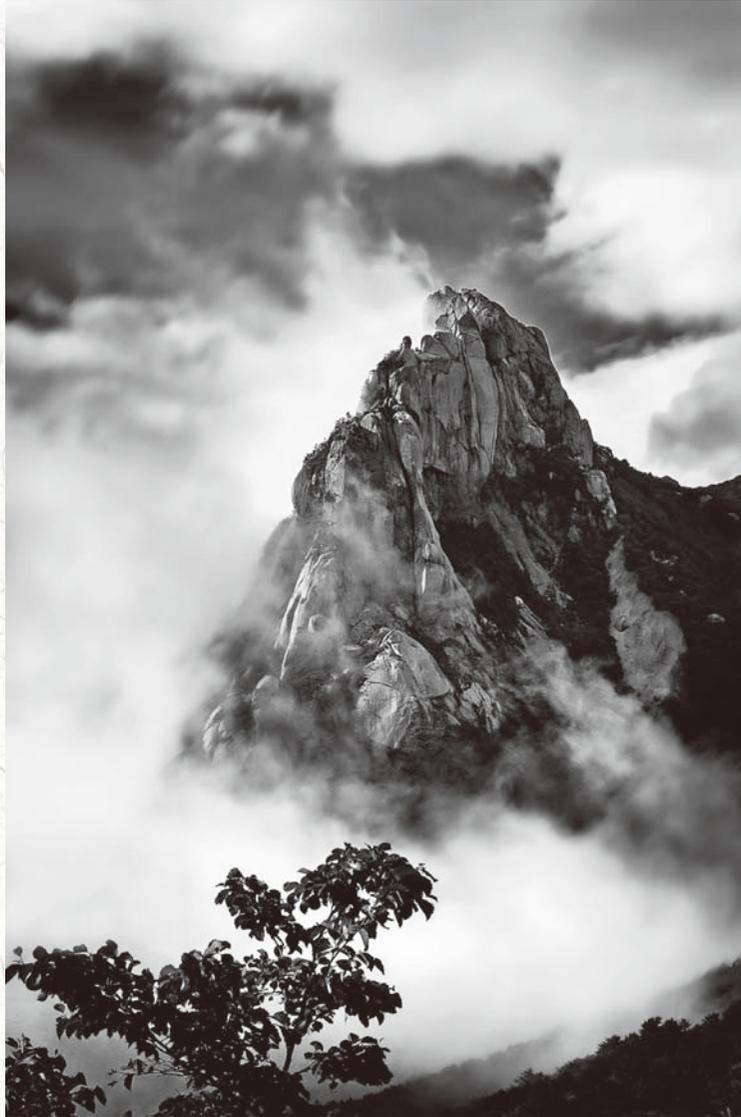


몽환속에 속초바다와 속초아이



강영진

-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회원
- 현대해상속초지점 플래너
- 대한적십자사 속초시협의회 홍보부장
- 강원도민일보 객원기자



운무 속 울산바위



유 홍 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회원전 17회
- 속초 농협중앙회 초대전(제1회 개인전)
-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 초대전
- 강원도 사진여행 전국 순회전
- 강원지역 사진작가 초대전



내일을 기대하며



최희재

- 1989~1991년 설악사진동우회 회장역임 • (현)포토라인 지도위원
- 2016 (사)한국사진작가협회속초지부 중급 사진반 강사역임
- 2017.1~12 속초시립도서관 사진강의 라이프룸과 포토샵의 이해
- 2017.1~2018.12.31 (사)한국사진작가협회속초지부 사무국장
- 2018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백두에서 설악까지 단체회원전
- 2017.9~2019.9 설악사진가협회 회장역임 • 2019.1~2021.12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지부장역임
- 2021.12.08~현재. 속초예총 부회장



새마을길 13 • Watercolor on paper

예담 이희숙

어반스케쳐스속초



인정 이희숙 작 · 속초시 수복로 신기료 · Watercolor on paper



신현숙 작 · 속초 백수씨 심야식당 · Watercolor on paper

속초문화원 365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사업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속초돈돌타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2022 학교문화 예술교육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실향민축제 부스운영

『2022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중등학생용 속초학 안내서 발간 사업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발간 사업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속초시지 발간사업

2022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2022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2022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시민의 문화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존 및 전승, 향토문화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사업입니다.

■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전통문화놀이 체험프로그램’

- 교육 기간 : 2022.3.~12.
- 내용 : 우쿨렐레, 쎬뻤, 난타, 사물, 탈만들기



■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속초문화유산답사기’

- 교육 기간 : 2022.3.~12.
- 내용 : 5회 / 상도문마을, 영랑호, 대포만세운동길, 국립산악박물관 등
- 참가인원 : 98명



■ 속초사람·속초이야기 전시회

- 교육 기간 : 2022.11.29.~12.4.
- 내용
 - 전시회 : 2010년~2017년 장릉사진공모전 수상작
 - 체험행사 : 속초사진관 포토존(플로라이드 촬영 무료 제공), 추억의 뽑기 운영
 - 사진으로보는 속초사람·속초이야기 도록 800부



■ 2022 강원문화대축전 in 홍천 참가

- 일시 : 2022.11.30.(수) 11:00
- 장소 : 홍천종합체육관
- 내용 (참가인원 : 40명)
 - 문화유공자 포상
 - 강원도지사 표창(속초문화원 이사 유종완)
 - 강원도의회 의장 표창(속초문화원 이사 이정용)
 -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예술강사 이진향)
 -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강좌
 - 스케치 작품 10점 전시



■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 일시 : 2022.9.7.(수) 10:00
- 장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 내용 (참가인원 : 40명)
 - 사물놀이반 '두두리' 초청공연



■ 문화유적답사(1차)

- 일자 : 2022.6.8.(수)
- 인원 : 37명
- 장소 : 서울 및 강릉 일대(청와대, 아르떼뮤지엄 강릉)



■ 문화유적답사(2차)

- 일자 : 2022.7.6.(수)
- 인원 : 40명
- 장소 : 서울 및 강릉 일대(청와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 2022 문화학교 수료·전시·발표회

- 일자 : 2022.11.22.(화) 17:00
-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내용 (참가인원 : 380명)
 - 우수수강생 18명
 - 공연 12팀
 (민요, 흥사랑노래교실, 라인댄스, 돈돌라리, 사물,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고고장구&난타, 웰빙라틴, 통기타, 행복한노래교실, 쟈뎬, 우쿨렐레)
 - 전시 6팀 (서예, 한지, 스케치, 드로잉, 천연염색, 천문학)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별자리 이야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 기간 : 2022.4.~10. (6회, 84명)
- 내용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별자리 이야기 강의 및 별자리 실습
 ‘그림으로 전하는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세계’
- 수업횟수 및 향유인원 : 6회, 84명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올해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문화자원 활용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속초의 지역문화자원(역사와 문화 등)과 도서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지역 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속초생명숲돌봄센터, 속초YWCA다솜아동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속초문화원 대표 문화예술강좌로 자리잡은 ‘영화야놀자’,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를 운영하였다.

• 지역문화자원 활용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교육 기간 : 2022.7~12.

향유기관	지도강사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속초생명숲돌봄센터	오성란	22회	222명	
속초YWCA다솜아동센터	오성란	18회	205명	
		40회	427명	

•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기간 : 2022.8.3.~8.12.

프로그램명	지도강사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영화야놀자	양수진	8회	78명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	오성란	8회	79명	
	계	16회	157명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사진, 구술, 자료집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교동·노학동·청학동 사람들과 도시역사의 가치를 되새겨보기 위한 작업으로 『속초도시변천사Ⅲ, 교동·노학동·청학동』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22년 4월~12월
- 집필진 :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김정환, 정종천, 한정규)
관내 고등학교 교사(김창섭, 박명선)
- 자료집 발간 : 『속초도시변천사Ⅲ, 교동·노학동·청학동』(250부)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문화시민학교 ‘행복한노래교실, 라인댄스, 한지공예, 스케치로만나는속초, 줌베, 고고장구&퓨전난타, 사물, 웰빙라틴댄스,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돈돌라리, 우쿨렐레, 천문학, 통기타, 천연염색’ 14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 문화시민학교 운영

교육 기간 : 2022.3.~12.

(단위 : 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행복한노래교실	가요 및 트로트 등	홍 철	문화사랑방	60	934	
라인댄스	라인댄스 기초	이태림	문화사랑방	60	469	
한지공예	한지공예	이진향	문화사랑방	30	150	
스케치로만나는속초	생활예술미술수업	정봉재	문화사랑방, 속초도문농요전수관	60	580	
줌베	줌베기초	이은영	속초도문농요전수관	60	237	
고고장구&퓨전난타	고고장구, 난타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60	495	
사물	사물악기(기초)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60	434	
웰빙라틴댄스	라틴댄스 기초	최덕성	속초시댄스스포츠연구원	60	694	
천문학	별이야기	최원복	문화사랑방	30	101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댄스스포츠	이명우	속초시댄스스포츠연구원	60	646	
돈돌라리	속초사자놀이 무용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60	672	
우쿨렐레	우쿨렐레 기초	이은미	콘체르토음악학원, 문화사랑방	60	143	
통기타	통기타 초급	홍 철	소리향기기타연구소	60	443	
천연염색	천연염색	이향옥	크로바페션	60	286	
			계	780	6,284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있는 평생교육 강좌로 올해 30기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로는 ‘서예, 흥사랑노래교실, 민요, 드로잉’ 4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2일 ~ 24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전시회를 가졌고, 11월 22일 수료식 및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 향토문화학교 운영

교육 기간 : 2022.3.~12.

(단위 : 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서예	한문 서예	이덕우	문화사랑방	60	363	
흥사랑노래교실	가요 및 트로트 등	최봉하	문화사랑방	60	1135	
민요	경기민요 등	김헌섭	문화사랑방	60	284	
드로잉	드로잉 초급	정봉재	문화사랑방	60	294	
			합계	240	2,076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과 협업으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속초문화원의 주최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역의 도시 변천사 중 새로운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기 간 : 2022년 3월~10월
- 추진방법 : 선행연구, 문헌조사
- 내 용 : - 1920년대 장천마을 분묘확인 소속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도천면(속초)지역
사회 경제 동향 (2022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논문 출)
- 속초 암석문 해석
- 속초문화 기고문 정리



속초돈돌라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속초돈돌라리의 보존, 전승 및 발전과 보존회 단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구현하고, 회원 상호친목을 도모하여 속초돈돌라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 속초돈돌라리 보급, 보존, 전승 사업

- 기 간 : 2022년 3월~12월
- 참가자 : 속초돈돌라리 보존회 회원 40명
- 내 용 : - 속초돈돌라리 보존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습 및 특별강습
- 속초돈돌라리 보존회원 및 속초 시민들을 위한 발표회
- 속초돈돌라리 홍보를 위한 발표회



속초문화원은 6·25전쟁 중에 함경도 이주민들이 정착한 속초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이주민속인 ‘속초돈돌라리’를 미래무형문화로 육성하기 위해 학술적 조사연구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 기 간 : 2022년 4월~12월
- 참가자 : 연구진 3명, 속초돈돌라리 보존회 50여명
- 내 용 : - 미래무형문화유산 결과보고 심포지엄 1회
 - 1세대 돈돌라리 구술·채록 및 인터뷰 동영상
 - 결과보고서 100부



2022 학교문화 예술교육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문화를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흥미와 창의적 표현력 및 정서 지능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활동이다.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속초에 빠지다!’ 사업을 올해 관내 11개 초등학교에서 놀이, 토론, 샌드아트 3가지 분야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많은 기여 했다.

■ 학교문화예술교육

- 교육기간 : 2022.4.~12.

구분	향유 학교수(개)	수업횟수(회)	향유인원(명)	비고
놀이	10	138	2,704	
토론	6	54	1,033	
샌드아트	10	80	1,869	
계	26	290	5,606	

• 향유초등학교 및 참여강사명

구분	향유 초등학교명	참여 강사	비고
놀이	조양, 온정, 중앙, 대포, 소야, 청호, 속초, 설악, 교동, 청봉	김수호, 김은경, 김주현, 안명실, 이은경, 조미라, 조미영, 최현주, 함정미	
토론	교동, 소야, 설악, 대포, 청호, 조양	문정아, 이은경, 전영주, 함정미	
샌드아트	소야, 중앙, 조양, 온정, 속초, 설악, 청호, 교동, 대포, 청봉	강미, 김달님, 박문숙, 박향미, 윤혜선, 이순복	
계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연구·재현하고 시민들에게 지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가교역할과 공연을 통한 전통문화의 지속적 전승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전통 민속의 새로운 공연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 기 간 : 2022년 9월 29일 ~ 30일
- 참가자 : 속초돈돌라리 보존회 회원 및 악사 50여명 참가
- 내 용 : - 강원민속예술축제 연습 6회
 - 대회참여 공연 1회
 - 공연콘텐츠 제작(공연시간 30분)
 - 강원도 행사 참여로 인한 속초돈돌라리 홍보



실향민축제 부스운영

이북의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기 위한 주요 행사인 실향민문화축제에 참석하는 속초시민들과 속초를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향토문화와 생활사를 알리고자 하였다.

■ 실향민문화축제 부스운영

- 기 간 : 2022년 6월 17일 ~ 19일
- 내 용 : - 속초문화 퀴즈 이벤트
- 속초 옛 사진 전시전
- 속초 관련 서적 배포



'행복더하기, 댄스교실'

『2022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을 통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고 어르신 개개인의 즐거움과 작은 행복의 향유를 문화예술활동 참여로 마련하였다. 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삶과 생활 속의 활력을 불어 넣으며, 더불어 활동을 통해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 『2022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

- 기 간 : 2022년 5월 ~ 11월
- 장 소 : 속초시댄스스포츠연맹
- 프로그램명 : 행복더하기, 댄스교실
- 내 용 : 댄스강좌(32회), 특강(2회), 공연(1회)

『2022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



중등학생용 속초학 안내서 발간사업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및 관내 중등교사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중등학생용 속초학 안내서로 제작하여 관내 중등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지역향토문화 교육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들이 지역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중등학생용 속초학 안내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 기 간 : 2022년 5월~10월
- 참가자 : 김정환 - 대진고등학교 교사, 최종학 - 속초고등학교 교사
정승호 - 속초고등학교 교사, 김동현 - 해랑중학교 교사
- 내 용 : 『중등학생용 속초학 안내서』 - 원고집필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및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초등교사용 속초학안내서로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보급하여 속초학 교육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들이 속초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발간 사업

■ 속초학 안내서

- 기 간 : 2022년 4월~12월
- 참가자 : 이상만 - 천진초등학교 교사, 김영선 - 소야초등학교 교사
박정남 - 인흥초등학교 교사, 김기용 -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 교사
- 내 용 :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200부)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청소년 대상 속초학 이해 및 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성 연구 포럼’

- 속초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속초학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모색
- 속초학에 대한 이해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속초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을 높여야 함

■ 포럼

- 기 간 : 2022년 10월 21일
- 발제자 : 관내 학부모 - 이인구, 속초학연구소 소장 - 최재도, 해랑중학교 2학년 - 구나운,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 이수영,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장학사 - 조순희
- 내 용 : 『속초 관내 청소년 대상 속초학 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포럼』 (50부)



‘나를 위한 쓰고 그리기’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으로 수용자들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의도하며, 정적인 문화활동으로 수용자들에게 삶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른 수용자들에게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여 프로그램의 긍정성을 확산시켰다.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기 간 : 2022년 5월 ~ 11월
- 장 소 : 강원북부교도소
- 프로그램명 : 나를 위한 쓰고 그리기
- 내 용 : 캘리그래피 대면 수업 (25회)



『속초시지 발간사업』

『속초시지 발간사업』은 2006년 束草市史 발간 이후 개정판 발간이 없어 현재까지의 속초시 전반에 대한 시지(市誌) 출간이 요구되어, 2023년 속초시 승격 60년을 맞아 속초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시지(市誌) 편찬 사업을 속초문화원이 수행기관이 되어 진행 중이다.

■ 『속초시지 발간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3년 12월
- 장 소 : 속초문화원
- 사업규모 : - 1,000질(6권/1질, 총4,200쪽 / 1질)
 - 본권 3권(상·중·하, 950쪽 / 권당)
 - 별권 3권(450쪽 / 권당)
- 내 용 : - 본권(3권) : 속초의 역사, 자연환경, 인문환경, 정치, 행정, 사법, 산업, 경제, 관광, 축제, 사회, 복지, 교육, 종교, 성씨, 인물, 민속, 지명, 언어, 문학, 예술, 문화유산
 - 별권(3권) : 구술로 읽는 속초, 사진으로 보는 속초, 사료속의 속초



2022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

- 발행일 : 2022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김영선, 김기웅, 박정남, 이상만
- 출판 : 엠제이디자인 주식회사
- ISBN : 979-11-965930-9-4

2022 속초학 안내서는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및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초등학생 교사지도용으로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 『도시변천사Ⅲ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

- 발행일 : 2022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편집인 : 한정규
- 저자 :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김창섭, 박명선
- 출판 : 씨엔씨디자인
- ISBN : 979-11-981312-0-1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기록사업 자료집인 이 책은 2020년 『속초도시변천사 I 영랑동·장사동』, 2021년 『속초도시변천사 II 동명동·중앙동·금호동』에 이어 「청학동·교동·청호동·노학동」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자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였다.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탁명원 (속초문화원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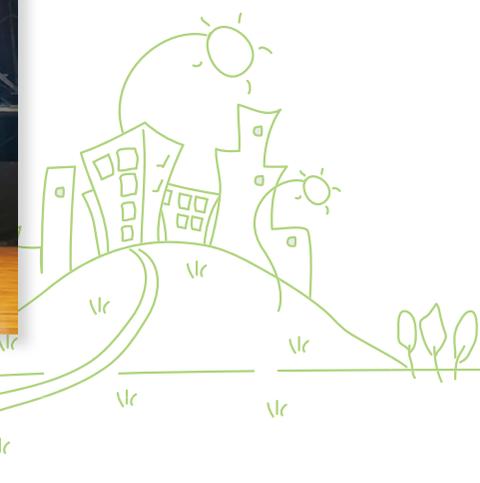
2022 자원봉사대회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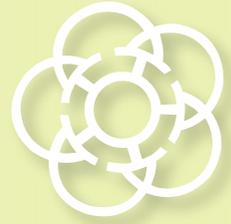


■ 유종완 (속초문화원 이사) 2022 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공자 포상 강원도지사상 수상

■ 이정용 (속초문화원 이사) 2022 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공자 포상 강원도의회 의장상 수상

■ 이진향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2022 강원문화대축전 문화유공자 포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속초학 연구

- 「대포의 기적」을 번역하며
- 평생교육에서의 지역학 교육의 위상과 과제
- 『속초시지(東草市誌)』 편찬방향 및 활용방안
- ‘속초’ 지명의 음운론적 고찰



©이명자



『대포의 기적』을 번역하며

김재환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

요즘 한시(漢詩)를 쓸 수 있는 사람 찾기가 가뭄에 콩 나기를 기대하는 현실에서 한시는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학문의 영역인 연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오랜 세월 이 땅에 살았던 조상들이 기쁨의 씨줄과 슬픔의 날줄로 엮었던 한시에서 옛사람들의 감흥과 삶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한시의 이면(裏面)을 뒤적이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시를 단순하게 ‘한문(漢文)으로 쓰인 시(詩)’라고 사전적(辭典的) 정의를 내리고는 한시를 단지 학문적 영역으로 구축(驅逐)하는 일은 우리 마음 속에 면면하게 이어지는 옛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기에 한시를 쓸 수는 없어도 한시를 읽고 느끼며 생활 속에 가까이하는 습관은 이 땅을 사는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시의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사는 내 고장의 모습을 소재로 쓰였다면 한시를 읽고 난 후 찾아오는 따스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유학자(儒學者)로는 잘 알려졌지만, 시인(詩人)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선생의 『대포의 기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포의 기적(大浦汽笛)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作

汽氣能行萬里船

증기 기운으로 배는 만 리 갈 수 있는데

虎嘯龍吼響相連

호랑이 울부짖고 용이 우는 소리 서로 이어져 울리네

千勻碇鐵深垂地

천근 무게의 닻, 쇠는 깊은 바닥에 드리우고

一朵煤煙遠亘天

하나의 늘어진 검은 연기 멀리 하늘로 뻗었네

歷歷山河心上記

환하게 뚜렷한 산과 내를 마음에 기억하여

招招人土曲中傳

애타게 손짓하는 사람이 노래 속에 전한다네

聞來或恐乘時晚

들려 오기를 혹시나 오르는 시간에 늦는 것이 두려워

筇屐蒼黃競赴前

지팡이 짚고 나막신 끌며 겨를 없이 다투어 앞으로 나가네

『매곡유고』에 실려있는 매곡 선생의 작품은 315수(首)로서 모두 칠언율시이다. 그중에 작성연도를 알 수 있는 작품은 선생의 연세 52세인 1923년 계해년(癸亥年)부터 75세에 돌아가시던 1946년 병술년(丙戌年)까지 24년간 244수를 지었으므로 일 년에 평균 10수 정도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성

연도를 알 수 없는 초기 작품이 70수임을 고려하면 『매곡유고』에 실린 첫수 「피꼬리 소리를 들으며(聽鶯)」라는 작품은 1913년 계축년(癸丑年) 즉 매곡 선생의 연세가 대략 42세 전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난 지금의 현실에서 보더라도 42세 전후에 첫 작품이 나온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공자께서 논어의 태백(泰伯) 편에서 “시(詩)로서 뜻을 일으키고, 예(禮)로서 뜻이 확립되고, 악(樂)에서 뜻이 완성된다(子曰興於詩立於禮成於樂)”라고 말씀하며 인간의 정신적 발전의 3단계에 시(詩)의 중요성을 가장 앞에 두었다. 또한 계씨(季氏) 편에서 큰아들 백어(伯魚)에게 “시(詩)를 배웠느냐?”라고 물어서 백어가 “아직 배우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자 “시를 배우지 않으면 이야기 할 것이 없다(不學詩無以言).”하고 말씀하여 선비의 대화에서 시(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유교(儒敎)의 경전에서 시(詩)를 중요한 학문의 대상으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서(四書)를 어릴 적부터 익혔던 매곡 선생이 장년이 넘은 후에야 작품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매곡오처사행장(梅谷吳處事行狀)」에서 “선비가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 마땅히 천작(天爵)¹을 닦아야 하며 어찌 인작(人爵)²을 억지로 구하겠는가.”라고 하며 ‘과거(科擧) 과목에 대한 학업을 폐하고 「사서(四書)」 「육경(六經)」 「근사록(近思錄)」 및 정주(程朱)의 글을 스승으로 삼아 강구(講究)³한지 여러 해가 되었고, 심성(心性)·이기(理氣)와 음양(陰陽)·상수(象數)의 학설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혹은 글을 쓰기도 하여 좌우 벽에다 걸어놓고 완색(玩索) 하였다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경학의 학문적 완성에 먼저 뜻을 두었고 시문에 관한 공부는 학문적 경지가 이룩된 후부터 시를 쓰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성연도의 간지(干支)를 알 수 없는 초기 작품 70수는 1913년 계축년 이전부터 1923년 계해년까지 약 10년 이상을 습작(習作)한 작품으로써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작품은 매년 간지를 기록하였다. 매곡 선생의 55년간 일기를 쓴 유교적인 관습에 미루어 「피꼬리 소리를 들으며(聽鶯)」라는 첫 작품은 42세인 1913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초

1 천작(天爵): 「하늘에서 받은 벼슬」의 뜻으로, 존경(尊敬)받을 만한 선천적(先天的) 덕행(德行).

2 인작(人爵): 「사람이 정하여 주는 벼슬」이라는 뜻, 공경(公卿)·대부(大夫)의 지위(地位)를 이르는 말.

3 강구(講究): 좋은 방법(方法)을 조사(調査)하여 궁리(窮理)함.

4 『국역 매곡유고』, 2006, 속초시 문화공보과, pp.11~12.

기 습작한 작품이라 하여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기 작품에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참신한 내용은 후기의 작품을 압도하고 있다.

『매곡오처사행장(梅谷吳處事行狀)』에서 ‘시문을 공부함에도 화려한 문채(文彩)를 추구하지 않고 평담(平淡)·간결(簡潔)한 맛을 취하였으며, 일찍이 기호(畿湖)의 명유(名儒)들을 찾아 가르침을 받고 견문을 넓혔다.’라고 기술된 것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 중인과 서얼(庶孽) 및 하층민들의 저항적인 정신을 이야기하였던 위항시인(委巷詩人)⁵의 작품 세계가 매곡 선생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실례로 매곡 선생의 작품 연대를 알 수 없는 초기 70수의 작품은 「이앙(移秧)」 「독서(讀書)」 「비غم(雨晴)」 「어옹(漁翁)」 「양계(養鷄)」 「형제(兄弟)」 「감자(甘藷)」 「제비(鷺)」 「얼음(氷)」 등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이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위주로 하던 전형적인 한시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작품 세계를 추구하였다.

『매곡유고(梅谷遺稿)』에 실려있는 「대포의 기적」은 1872년 임신생(壬申生)인 매곡 선생의 연세가 59세 때인 1930년 경오년(庚午年)에 지은 근체시 형태의 칠언율시(七言律詩)의 한시(漢詩)이다. 형식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율시로서의 전형적인 형식과 압운(押韻)의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 두 구절을 묶어 일연(一聯)으로 엮은 네 개의 연은 수련(首聯), 함련(頷聯), 경련(頸聯), 미련(尾聯)을 구성하고 있다. 압운(押韻)은 제1·2·4·6·8 구절의 마지막 자구(字句)의 종성에 나온(ㄴ)받침의 각운(脚韻)을 붙였다. 또한 율시의 형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함련과 경련의 대구는 뚜렷한 대어(對語)를 사용하였다.

대구(對句)를 이루는 대어(對語)의 모습을 살펴보면 함련의 제3구와 제4구에 있어서는 천균(千勻)과 일타(一朶), 정철(碇鐵)과 매연(煤煙), 심수지(深垂地)와 원궁천(遠亘天)이 대어로서 연구를 이루고 있으며, 경련의 제5구과 제6구에 있어서는 역역(歷歷)과 초초(招招), 산하(山河)와 인사(人士), 심상기(心上記)와 곡중전(曲中傳)이 대구어(對句語)로서 완벽한 연구(聯句)를 이루고 있다.

5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겪은 뒤 17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중인 이하의 계층에 속하는 서민층의 사회적 지위가 차츰 증대되어가기 시작했다. 하층 계급 출신의 위항시인이 등장함으로써 문학 담당층이 크게 확대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 위항시인의 대거 등장은 중세적인 봉건사상에 대한 저항 의식과 자갈 성으로 발전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를 향한 개화 의식 또는 근대정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항시인[委巷詩人] (한국현대문학사, 2004. 2. 25, 권영민)

「대포의 기적」은 1930년 대포항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시대적 상황을 오래된 활동사진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록과 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포항을 경유하는 동해안 연안항로는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10월에 개설되어 다음 해인 1909년 2월 기선(汽船)이 처음 운행되었다. 이 항로 개설을 위하여 대한제국은 일본인 요시다슈타로(吉田秀太郎)의 합자회사에 3년간 총 5만1천57원의 보조금과 대한제국의 소유 선박인 용희호(691톤)를 대여하며 부산-웅기 사이의 명령항로 4개 노선을 개설하였다. 당시 대포항을 통해 북으로는 원산을 거쳐 함북 웅기, 러시아 연해주까지, 남으로는 부산을 거쳐 일본 규슈까지 해상 항로가 연결되었다.⁶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연호가 용희(隆熙)라는 사실과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용희 연호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듯, 이에 앞서 처음부터 침략의 야욕을 감춘 일제(日帝)가 파격적인 자금과 특혜를 강요하며 연안항로 개발의 핑계로 대포항을 오갔던 용희호(隆熙號)가 1910년 6월경 울산 부근 연해에서 좌초하여 사라져 갔다는 데칼코마니적인 현상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후 1926년 3월 27일 강원도에 있는 강부운수조합(江釜運輸組合)에서 기선(汽船) 2백 70톤짜리 용정환(龍正丸)과 신식기선 강원환(江原丸)을 취역시킨다. 따라서 매곡 선생이 「대포의 기적」을 썼을 때는 용정환과 강원환이 소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수련, 제1구에서 ‘증기 기운으로 배는 만 리 갈 수 있는데(汽氣能行萬里船)’라고 표현한 것은 매곡 선생이 살았던 과거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변하는 외세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 종전에는 신속한 군사적 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천리마(千里馬) 즉,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는 말’에서 ‘만 리를 갈 수 있는 배’로 변환된 것이다. 이는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벌였던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의 발발 양상의 결과가 육지의 ‘말’에서 바다의 ‘배’로 변화되었다. 매곡 선생은 ‘배는 만 리를 갈 수 있는데’라는 복선을 사용하여 그 이전 시대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두려운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제2구에서 ‘호랑이 울부짖고 용이 우는 소리 서로 이어져 울리네(虎嘯龍吼響相連)’는 1927년부터 제3차 걸친 일본의 산둥반도 출병과 지난(濟南)에서 일본군과 북벌군과의 충돌하는 동아시아의 모습을 ‘호랑이 울부짖음과 용이 우는 소리’로 비유하였다. 옛날 중국의 진(秦)나라가 망하고 초(楚)나라의

6 『속초의 시작, 대포항을 기억하다』,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속초문화원사무국, pp.16~18.

항우(項羽)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패권을 다툰 때 홍구(鴻溝)를 경계로 하여 동쪽은 항우가 서쪽은 유방이 차지하기로 협약하였다. 당송(唐宋) 팔대가의 한사람인 한유(韓愈)의 시(詩) 「홍구를 지나며(過鴻溝)」에 ‘용과 범이 지쳐 이 강의 언덕으로 나누니(龍疲虎困割川原)’라는 문구는 「대포의 기적」과 매우 유사하게 전쟁의 상태를 표현하였다. 한유가 전쟁 도중의 양진영 군사들의 지친 모습을 용과 호랑이로 비유하였다면, 매곡 선생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막 시작하려는 긴박한 모습을 호랑이와 용의 울부짖음으로 비유하였다.

한런, 제3구에서 매곡 선생은 일제의 암울한 지배를 ‘천근 무게의 닷’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일제의 지배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심정을 ‘천근 무게의 닷 쇠는 깊은 바닥에 드리우고(千鈞碇鐵深垂地)’로 표현하였다. 제4구에서 만주에 대한 일제의 야욕을 ‘하나의 늘어진 검은 연기’로 비유하여 ‘하나의 늘어진 검은 연기 멀리 하늘로 뻗었네(一朵煤煙遠亘天)’로 전쟁이 임박하였음을 표현하였다. 매곡선생의 이러한 예측처럼 일제는 만주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로써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대포의 기적」이 쓰인 다음 해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경련, 한일합방 후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지주제를 강화하고 자작 농민의 토지 소유를 저지하는 한편 농민의 소작인화 내지는 토지의 이탈을 가속화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나고 3·1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식민지 농업정책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 농민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농민조합의 출현으로 일제의 분열 정책에 대항하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하여 빈농층으로 전락하였으며 합법적인 농민조합 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비합법적인 적색농민조합운동(赤色農民組合運動)으로 변화하여 갔다.⁷

제5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여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고향을 등지는 농민의 모습을 혹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연해주로 기약 없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떠나는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누군가 대포항 기선의 난간에 기대어 삶의 터전이었던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산과 내를 눈에 담아 오래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모습을 ‘환하게 뚜렷한 산과 내를 마음에 기억하여(歷歷山河心上記)’으로 표현하였고, 제5구가 산천의

7 『속초시지』, 1991, 속초시, pp.82~83.

모습을 그렸다면 반면 제6구는 정다운 사람과의 안타까운 이별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매곡 선생이 ‘노래 속에 전한다네(曲中傳)’에서 ‘전하고자’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제5구에서 말한 ‘환하게 뚜렷한 산과 내(歷歷山河)’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을 대신하여 굳세게 지켜내겠다는 매곡 선생의 강고한 의지를 떠나는 사람의 애처로운 몸짓을 빌어서 ‘애타게 손짓하는 사람이 노래 속에 전한다네(招招人士曲中傳)’로 노래하고 있다.

미련, 함련이 떠나는 사람 중심이었다면, 미련은 남아있는 사람으로 화제를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매곡 선생은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연세가 59세가 되어 초로의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이 떠나는 친지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제7구에서 ‘혹시나 오르는 시간에 늦는 것이 두려워(或恐乘時晚)’라고 표현하였으며, ‘들려 오기를(聞來)’라는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며 제삼자의 행동으로 객관화시키는 완곡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제8구에서 매곡 선생은 유학자로서의 오랜 수양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인간으로 돌아가고픈 모습을 ‘지팡이 짚고 나막신 끌며 겨를 없이 다투어 앞으로 다가가네(筇屐蒼黃競赴前)’라고 읊으며 시를 끝낸다.

요즘 대포항에 가보면 매곡 선생이 두려움의 눈길로 보았던 기선도 검은 매연도 찾아볼 수 없지만 ‘환하게 뚜렷한 산과 내(歷歷山河)’는 변화하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역사라는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매곡 선생의 「대포의 기적」은 한시의 칠언율시로 엄격한 형식을 지켰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위향시인을 영향을 받아 일제의 침략에 강렬하게 저항하며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을 노래한 우리 속초의 한시였다.

속초문화

평생교육에서의 지역학 교육의 위상과 과제*

양용 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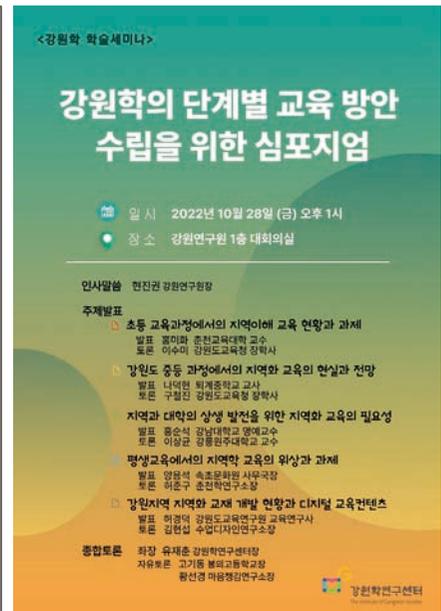
II. 지역학 교육 - 평생교육 수행 기관

1. 지방문화원
2. 기관·단체 등
 - 1)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속초시립박물관
- 3)기타

III. 맺는말

-표목차-

- <표1>‘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속초 지역 이야기’ 중심어 및 관련 학문 분야
- <표2>한국문화원연합회 협조 공문 요청 주요 내용
- <표3>속초문화원 속초학 교육 사업
- <표4>속초 지역 교육 기관 현황(초등학교 이상)
- <표5>강원도 시·군에 위치한 대학교 현황(4년제 이상)
- <표6>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비전 및 추진전략
- <표7>속초사잇길 10길
- <표8> 속초사잇길 아카데미 수료자 현황
- <표9> 최근 3년간 속초사잇길 참여자 수
- <표10> 2022 속초학 아카데미 세부 프로그램
- <표11>2022년, 00회 회원 대상 속초학 강의 일정 및 내용



* 이 글은 2022년 10월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강원학 학술세미나; 강원학의 단계별 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현재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북미학 박사, 사회·문화 전공)

I. 머리말

지역학(地域學, Area Studies)은 어느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세계 대전을 거치며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복속 지역 혹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학문이 ‘지역학, 혹은 국제지역학’으로 명명되었다. ‘한국학(Korean Studies)’, ‘미국학(American Studies)’, ‘일본학(Japanese Studies)’, ‘중국학(Chinese Studies)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시작점이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만큼 초기에는 정치학(국제정치학)의 아류 정도로 여겨졌으나, ‘문화의 상대성’처럼 단위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 연구 등과 같은 학문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역학’이라는 독립적인 위치와 학문으로 정립되어 왔다.

지역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를 들 수 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단위 학문의 연구가 아닌 문화에 정치·경제 등이 미친 영향, 정치에 역사·문화가 미친 영향 등과 같이 학문간 융합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학이 최근 국내지역학으로 학문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지방분권 이후 높아짐에 따라 지역학이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을 망라하는 지역 고유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 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에서도 지역학 교육 과정 운영 요구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학 교육은 향후 더욱 확산될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속초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서의 지역학 교육의 위상과 과제를 논하며, 특히 향후 방향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하려 한다.

II. 지역학 교육 - 평생교육 수행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일종의 우산개념(雨傘概念)으로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교육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새로 사용하는 이유는 종래의 교육은 학교 본위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교육은 흔히 학교교육과 동의어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학교교육이 교육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육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 새로 필요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는 종래의 학교 본위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관의 주장이 배경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평생교육론은 빠르게 전파되어 20세기 말에는 교육의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는 학교중심교육제도를 평생교육제도로 개혁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평생교육이란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교육의 포괄적 개념이며, 기존 학교중심교육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관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로 함축될 수 있다.

지역학 교육의 경우 교육의 주체가 가정이나 학교일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교육의 효과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속초 지역 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다소 과장하자면 역사·사회·문화·경제·정치·언어·지리·음악·무용·희곡·인류학 등이 총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위 주제에 대한 중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속초 지역 이야기’ 중심어 및 관련 학문 분야

중심어	관련 학문 분야	비고
한국전쟁	국제정치 등	-
자유주의 / 사회주의	정치사·정치사상·철학 등	이북, 이남
속초 / 양양 / 원산	지리, 경제, 사회 등	철도
미군정	정치, 행정, 사회 등	한국군 제1군단
청호동	행정, 역사, 자연환경 등	5구
아바이마을	언어(방언) 등	함경도 방언
돈돌라리, 사자놀이, 북한 음식	문화 / 음악 / 무용 / 희곡 등	북한기반 문화유산
실향민 대상 현장조사(구술사 등)	인류학 등	실향민 1, 1·5, 2세대 대상

일제강점기	역사, 정치 등	-
속초 원주민	역사, 사회, 정치 등	-
실향민	사회, 경제, 정치 등	계층분화, 어업

하나의 주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역학(향토사)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지방문화원을 들 수 있다.

정규 교육기관(학교)을 제외한, 지역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과 관련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학 교육 사례들과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의 정의는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설립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시·도지사 인가 등)’이다. 주요 사업(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으로는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 컨설팅, 문화예술교육, 다문화 문화 지원 등’이다.

국내지역학은 선발 주자로 ‘춘천학’, ‘서울학’, ‘안동학’ 등과 같이 도시 이름에 ‘학’을 붙여 지역학으로서의 체계와 위상을 갖추어 나간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향토사’ 명칭을 사용하여왔다. 지역의 향토사 연구 및 사업은 대부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문화원 산하에 부설 ‘향토사 연구소’가 대부분 설치·운영되어 왔다.

강원도의 경우 2022년 6월, 강원학연구센터와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제32회 강원도 지역학 연구 발표대회’부터 ‘향토’라는 용어를 ‘지역학’으로 대체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22년 9월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 ‘향토사를 지역학으로 확대’ 요청을 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

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원 부설연구소의 지역학연구소 개칭 협조 공문』(2022.09.21. 일자)

<표2>한국문화원연합회 협조 공문 요청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문화분권·문화자치에 기반한 지역의 중요성 강조 되고 있는 현실. 2.지방문화원이 지역학 거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원 산하 부설연구소(향토문화연구소 등)를 지역학연구소 로 개칭					
개정 목적	-과거, 전통, 역사 등으로 한정되는 ‘향토사’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의미인 ‘지역학’으로 확대					
요청 사항	<table border="1"> <tr> <th>기존</th> <th>변경</th> </tr> <tr> <td>00향토사연구소</td> <td>(예시)강원학연구소, 김포학연구소 등으로 개칭하여 운영</td> </tr> </table>	기존	변경	00향토사연구소	(예시)강원학연구소, 김포학연구소 등으로 개칭하여 운영	
기존	변경					
00향토사연구소	(예시)강원학연구소, 김포학연구소 등으로 개칭하여 운영					

‘지역학 연구’가 지방문화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향토사 연구’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역학 조사·연구와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교육’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향토사가 지역학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지역학 교육’에 있어 주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사업 수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문화원의 경우, 2022년 초부터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를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로 개칭, 운영중에 있다. 속초학연구소 기반 현행 사업으로는 ‘속초시지(東草市誌) 편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속초학 교육 사업으로는 ‘학생 대상 속초학 교재 발간 사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초학 관련 아카데미 강의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에는 속초문화원 문화학교에 ‘속초학 강좌’를 개설 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업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속초문화원 속초학 교육 사업

종류	내용	대상	비고
속초학 교재 발간·배포	1. 『맨 몸으로 일제에 맞서다! 속초 만세운동』(2019)	속초관내 초·중등 학교	-속초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 지원 사업
	2. 『중등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2021)	속초관내 중등학교	
	3. 『중등학생을 위한 속초학 안내서』(2022)	속초관내 중등학교	
	4. 『초등교사를 위한 속초학 안내서』(2022)	속초 관내 초등학교	

속초학 강의	1. 『속초 만세운동』 특강(2019)	속초관내 초·중등 학교	-속초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 -법무부지원사업
	2. 『속초학』 특강(2022)	속초관내 중학교	
	3. 『속초학』 강의(2022)	강원북부 교도소 재소자	
	4. 『속초사잇길 아카데미』 특강(2019~2022)	속초사잇길 안내자	
	5.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속초학 강좌』(2023예정)	속초시민	
	6. 『속초학』 강의(2022)	속초 시민 동아리	

속초 지역에서 속초문화원이 지역학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학(속초지역학) 관련 조사·연구를 위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험 및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²

둘째, 속초 지역 내 속초문화원을 대체하여 평생교육 범위에서 속초학 교육을 진행할 전문 교육 기관이 부족하다.

<표4>속초 지역 교육 기관 현황(초등학교 이상)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기관 수	12	4	3	0	14개 (8개동 주민자치센터 포함)

<표4>에서 보면, 속초 지역은 평생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교는 전무하며, 속초와 인접한 고성군에 00대학교가 있지만 접근성이 어렵고 대부분의 학과가 경기도에 있는 캠퍼스로 이전되어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평생교육기관 역시 8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면 6개에 불과하다. 이중 2개는 강원도교육청 및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관³이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속초학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2 1965년 3월 개원한 속초문화원은 개원 초부터 현재까지 ‘속초학’ 관련 조사·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속초학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을 책자로 발간해 오고 있다.

3 속초교육문화관은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이며, 속초교육도서관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속이다.

<표5>강원도 시·군에 위치한 대학교 현황(4년제 이상)

시·군	대학교	대학수
춘천시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3
원주시	-연세대학교(원주) -강릉원주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4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2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강원대학교(삼척)	1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경동대학교(고성)	
양양군	-	
총계		10개교

강원도 각 지역의 특수성 및 환경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표 5>에서 보듯이 강원도 내에는 4년제 이상 대학이 10개교이지만 특정 지역들에 편중되어 있어 강원도 18개 시·군 중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이 없는 곳이 13개에 이른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도 속초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속초문화원의 사례처럼 강원도 시·군 지방문화원들이 지역학 교육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26),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지역다움’을 통한 문화강국으로 도약	
목표	◆ 지역가치 발굴·확산 중심으로 문화원 고유역할 강화 ◆ 체계적 지원 통한 문화원의 장기지속성 확보 ◆ 우수문화원의 적극적 발굴·지원 통한 성과 확산	
추진전략	핵심 추진과제	
지역 가치의 창조와 공유	1.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 2.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3. 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 기능 강화 4. 지역 문화·역사 교육 분야 역할 강화	
지속 가능 기반 구축	5. 지방문화원의 자체 재원 마련 지원 6. 시설 및 예산 지원 강화 7.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체계화	
혁신 역량 강화 지원	8. 문화원연합회의 지원기능 강화 9. 시도연합회의 사업 및 정책소통 거점화 10. 지역문화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 강화 11. 운영표준 마련 등 문화원 혁신역량강화	
◆ (문체부) 기본계획을 통한 방향 제시 및 우수 사례 확산		
◆ (지자체) 시행계획을 통한 실제 사업 및 예산 지원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계획에도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및 ‘지역 문화·역사 교육 분야 역할 강화’가 핵심 추진과제로 세워져 있다.

중점 추진과제에 있어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의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연구소 설립 등 지리적·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동일 문화권 및 지역 특성을 연구하는 지역학 연구 지원 강화(지자체)’

둘째, ‘시·도 문화원연합회 또는 권역별 대표 문화원 지정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은 권역별 지역학 연구 및 관련 네트워크 형성 지원(광역지자체)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관계된 근거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들 수 있는데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3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지역 문화·역사 교육 분야 역할 강화’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 지역교과 및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서로 연결되는 지역관련 교재 및 연계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원(지자체 및 지역교육청)

둘째,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를 활용, 청소년 및 귀농·귀촌·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등 인문·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화(지자체)⁴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역문화원이 ‘지역학 보급’ 및 ‘지역학 교육’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지방문화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을 수립 및 진행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기관단체 등

1)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속초의 사례 중 기관단체 중 ‘지역학 교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곳이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다. 기관단체협의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속초시청 환경과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속초시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2018년 12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에 따라 2020년에 속초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UN-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변화해 적용하고 이행지표를 지역형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중심에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다. 협의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속초시의 현황을 고려해 속초시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수립할 계획이다.(2018년 작성)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사업 중에 ‘속초사잇길 운영’이 있다. 속초사잇길 사업은 속초의 길을 10개 코스(속초 10길)로 나누어, “걸기를 통해 자연자원 보존의식을 고양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속초시보건소 및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의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속초 10길 코스는 다음과 같다.

4 전국 230개 문화원 운영 문화프로그램 수 2,461개, 연간 이용자 873,540명(2020년 기준)

<표7>속초사잇길 10길

구분	걷기코스	거리	시간
제1길 영랑호길	범바위→안축시비→보광사(충혼탑)→영랑교→카누경기장→화랑도체험장 →습지공원→범바위	7.3km	2시간
제2길 장사·영랑 해변길	장사항→시진교→해안길→등대카페→속초등대/돌계단→ 속초등대/나무계단→거문고공원→영금정→동명동성당→속초감리교회→ 영랑동골목투어→사진교→장사항	4.5km	1시간 30분
제3길 수복길	수복탑→GS25시→옛 속초역 터→시외버스터미널→소호거리→우렁골→ 공설운동장→속초교육문화관→노가리촌→40계단마을→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동 산동네→속초시청 뒤 주차장→옛 속초경찰서→수복탑	2km	1시간 20분
제4길 아바이마을길	중앙동 갯배선착장→신포마을 갯배선착장→신포해변→설악대교→아트플랫폼 갯배→유정충선장 동상→ 청호해변→청호초등학교 옆 벽화마을 골목→옛 청호시장→ 아바이마을 메인도로→아트플랫폼 갯배→설악대교→ 신포마을 갯배선착장→중앙동 갯배선착장	3km	1시간 30분
제5길 속초해변길	속초해변→송림산책로→바다향기로→외옹치→대포항전망대→ 관광도보다리→외옹치입구→하수도사업소→새마을→속초해변	5km	2시간
제6길 청대산길	청대산 등산로 입구→정상→신라샘→삼림욕장길→정자→정상→ 청대산 등산로 입구	5km	2시간
제7길 청초호길	엑스포상징탑→분수공원→요트계류장→유람선선착장→코마린→ 현)속초수협→설악대교→신포마을 갯배선착장→중앙동 갯배선착장→ 속초청년몰st→청초정→청초호 철새도래지→엑스포 상징탑	4km	2시간
제8길 청초천길	속초광장→청초천 제방길→철교→노리교→경동대설악캠퍼스 앞→ 서울보증연수원→이목리마을회관→뒷버덕길→숲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국립산악박물관→서울시연수원 옆→이목리수목원→ 도리원→소야벌→속초광장	4km	2시간
제9길 설악누리길	죽옥공원→설악누리길 숲→자생식물원→설악누리길 숲→죽옥공원	4km	2시간
제10길 만세운동길	대포만세운동기념관→대포초교→철독길→방축길→나무남재→ 떡밭재도로→도천정→중도문마을회관→중도문독방길→하도문독방길→ 설악해맞이공원→대포만세운동기념관	3km	1시간

속초사잇길 10길 코스에서 보면, 속초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 등
에 관련된 주제들이 스며있는 장소들이 대거 등장한다. ‘범바위, 안축시비, 갯
배, 아바이마을, 수복탑,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신포마을, 영금정, 외옹치’ 등이
그것들이다.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매년 속초사잇길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속초사잇길 10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2019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총 8회를 진행하였고, 수료자는 총 180명이다. 수료자들 중 속초사잇길 안내자로 선발된 사람들이 속초사잇길 걷기에서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다.

<표8> 속초사잇길 아카데미 수료자 현황

(단위 : 명)

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총계
수료자	21	29	27	20	17	25	21	20	180

<자료 제공 :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강의 내용은 각 길에 위치한 장소들에 스며있는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위주로 강의하며, 속초문화원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강의를 맡고 있다.

최근 3년간 속초사잇길 참여 시민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9> 최근 3년간 속초사잇길 참여자 수

년도	속초사잇길 참여자 수
2020년	5,555명
2021년	9,540명
2022년(9월 기준)	8,340명
총계	23,435명

<자료 제공 :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2)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은 매년 속초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 ‘속초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10주간(주1회, 2시간) 운영하며, 30명 선착순 모집 운영이다. 2022년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10> 2022 속초학 아카데미 세부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일시	강의시간	장소
1회	속초의 장소성과 지역문화의 변화	10.05.(수)	14:00~16:00	강당
2회	설악산 자연문화	10.12.(수)	14:00~16:00	강당
3회	조선시대 관공유람과 설악산	10.19.(수)	14:00~16:00	강당
4회	속초 음식생활사	10.26.(수)	14:00~16:00	강당
5회	속초 문화재 답사	11.02.(수)	14:00~16:00	강당
6회	속초권역 지정문화재와 그 가치	11.09.(수)	14:00~16:00	강당
7회	해방 후 속초, 양양지역의 소련군정과 공산체제 형성	11.16.(수)	14:00~16:00	현장
8회	속초의 민속예술	11.23.(수)	14:00~16:00	강당
9회	속초시와 문화도시	11.30.(수)	14:00~16:00	강당
10회	속초의 선사문화	12.07.(수)	14:00~16:00	강당

<자료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2022>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학 아카데미를 매년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및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연간 사업으로 매년 새로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이다.

하지만, ‘속초학’이라는 이름을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속초학의 전반적인 범위와 성격, 그리고 지역학의 특징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속초학 개론’ 강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3)기타

속초 지역의 지역학 교육에 있어 특이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친목 성격의 한 모임에서 ‘속초학 교육’을 진행한다. 00회란 모임으로 50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달 3번째 수요일 정기모임을 갖는다. 회원 구성원들은 30~60대 까지 남·여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외지에서 속초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들도 적지 않다.

저녁 식사시간에 앞서 강사를 초빙, 30~40분간 속초의 역사, 문화, 사회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는 해당 주제와 맞는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사무국에서 섭외,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상·지원한다.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4회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는 모임이 있는 해당 시기와 관련된 속초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으려 노력한다.

<표11>2022년 00회 회원 대상 속초학 강의 일정 및 내용

일정	주제	비고
6.15(수)	한국전쟁과 속초 실향민	속초 실향민축제 행사 시기와 맞물림
7.20(수)	속초 지명	속초 지명 유래 등
8.17(수)	속초 지명	속초 마을 지명 유래 등
9.21(수)	한국전쟁과 속초 원주민	-한국전쟁 미군정 시기, 속초에 주둔한 0군단장 초법적 행위로 인한 원주민 피해 (당시, 0군단장 공덕비 설립 주장이 지역 일부 단체에서 발의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던 상황)
10.19(수)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의 유래, 거리퍼레이드 상징성 등
11.16(수)	속초의 민속	예정
12.21(수)	속초의 인물	예정

III. 맺는말

강원도에서 평생교육에서의 지역학 교육은 ‘지방문화원’이 비교적 우수한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지역학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역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향토사’ 이름으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역학이 평생교육으로서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화 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독립변인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전문성 확보이다. 각 지역의 지역학 연구가 지금까지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 출신의 소수 인물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학 교재 발간이나, 강의에 있어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 및 학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 인프라의 지원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지역학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의 경우 대부분 시·군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전문인력 확보 및 지역학 연구소 운영에 있어 별도의 새로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의 ‘고정비용’ 성격의 예산 마련·지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 내에서 지역학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학 교육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지역학 교육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넷째, 지역학을 지역의 역사 및 문화만을 강조하는 기존 ‘향토사’ 범주로만 여기는 분위기를 지양하고, 독립 학문으로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에 따른 지역학 개론 및 연구방법론 등과 같은 학문적 성격을 기반으로 연구·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학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 및 강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학문적 체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학 교육의 전문성과 확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되고, 이것이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니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속초문화**

『속초시지(束草市誌)』 편찬방향 및 활용방안

이 글은 2022.12.22.(목) 속초문화원에서 열린 속초시지편찬위원회 주최, 「2022 속초시지 발간사업 연간보고회」에서 필자가 “속초시지 편찬 방향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PPT 자료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일반 학술논문의 형식이 아닌 요약식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이상수

(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속초시지 편찬위원.)

- 차례 -

1. 2000년 이후 발간된 타시·군지 발간사례

- 1)시대적 개관
- 2)주요 발간 사례
 - ①경기도 이천시지(利川市誌) ②경기도 광명시지(光明市誌)
 - ③경기도 의왕시사(義王市史) ④경기도 안성시지(安城市誌)
 - ⑤강원도 양양군지(襄陽郡誌) ⑥강원도 인제군지(麟蹄郡誌)
 - ⑦강원도 영월군지(寧越郡誌) ⑧강원도 고성군지(高城郡誌)

2. 속초시지의 편찬 방향 및 활용 방안

- 1)1991년 발간된 『속초시지(束草市誌)』 편찬 체제와 구성
- 2)2006년 발간된 속초시사(束草市史) 편찬 체제와 구성
- 3)향후 발간될 『속초시지(束草市誌)』 편찬 방향 및 활용 방안

1. 2000년 이후 발간된 타시·군지 발간 사례

1) 시대적 개관

→오늘날 전국 시·군지(市·郡誌) 역사편찬 서술의 기본적인 체제(편찬방법)는 전통적인 역사편찬의 서술 체제인 “기전체(紀傳體/예: 『삼국사기』, 『고려사』), 편년체(編年體/예: 『조선왕조실록』),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예: 『삼국유사』, 『연려실기술』), 강목체(綱目體/예: 『동사강목』)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백과사전적 편찬 서술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1990년대 들어오면서 질적·양적인 산업경제 발전과 성장에 힘입어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고장)의 역사·문화의 정체성 찾기 위한 중요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시사(廣域市史), ○○도사(道史), ○○시사(市史), ○○시지(市誌), ○○군사(郡史), ○○군지(郡誌史)”라는 이름으로 역사편찬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함. 이와 더불어 각 시·군(市·郡)의 하위 행정구역인 동·면(洞·面)에서도 “○○동지(洞誌), ○○면지(面誌)”라는 이름으로 역사편찬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990년대 발간된 전국 지자체의 “○○시사·시지·군사·군지(市史·市誌·郡史·郡誌)”들은 대체로 적게는 1권, 많게는 2권(상·하권) 정도로 발간되었음.

→200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 지자체의 시사·시지·군사·군지에 대한 편찬 작업은 크게 증가하여 적게는 2~3권, 많게는 5~8권으로 수량을 확대하여 책을 발간하고 있는 추세임.

→각 지자체의 역사편찬 주기는 각기 사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거나, 대체로 평균 20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경기도 지역의 지자체들은 본권과 자료집을 함께 집대성해, 전국 지자체의 시·군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강원도지역 일부 지자체들도 경기도 지자체의 몇몇 우수한 역사 편찬 체제의 구성과 내용을 ‘벤치마킹’해 본권과 자료집을 함께 집대성하여 발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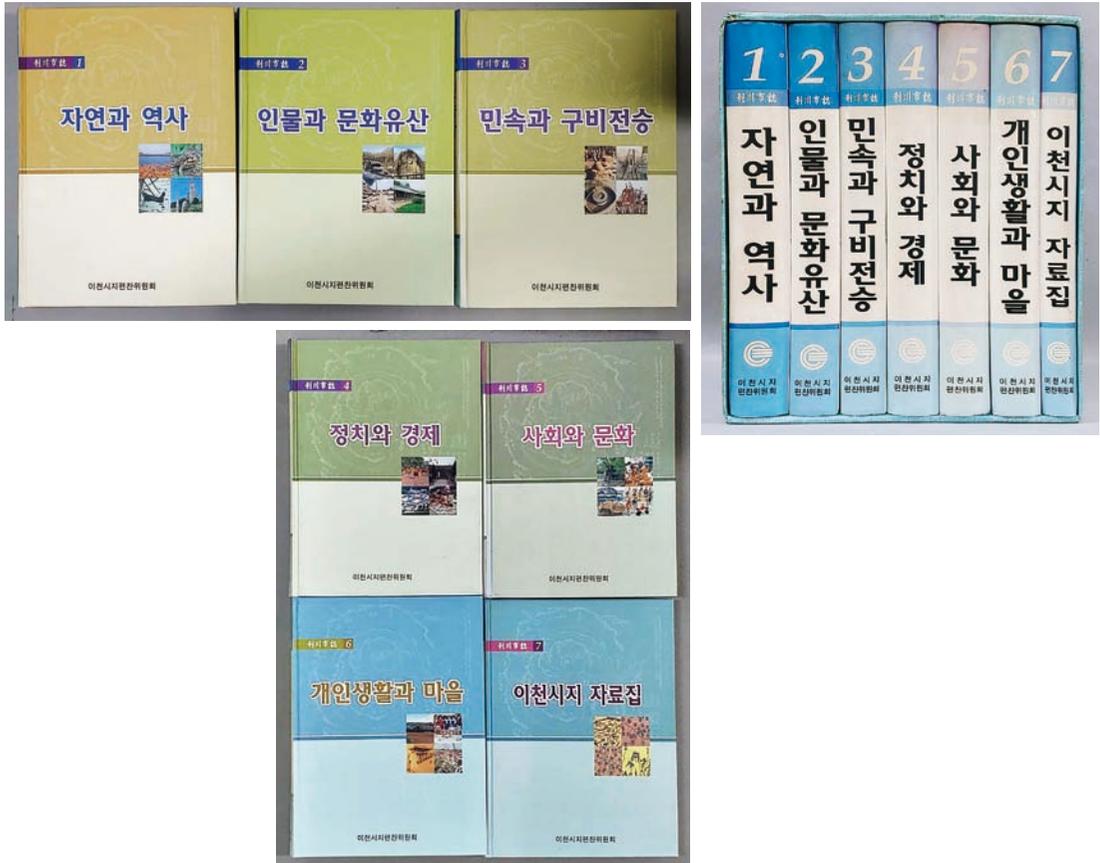
→특히 속초시와 서쪽으로 인접한 인제군에서 2017년 총 5권(본권 3권, 자료집 2권)으로 발간한 『인제군지(麟蹄郡誌)』와 북쪽으로 접한 고성군에서 2020년 총 6권(본권 3권, 자료집 3권)으로 발간한 『고성군지(高城郡誌)』가 가장 대표적임.

→지금까지 강원도지역 각 지자체들이 발간한 여러 시사·시지·군지 중에서 『인제군지(麟蹄郡誌)』와 『고성군지(高城郡誌)』는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주요 발간 사례

①경기도 이천시지(利川市誌, 2001)¹



→1984년 『이천군지(利川郡誌)』 발간 후, 1997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01년 10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완성함.(17년 만에 재발간)

→이천시에서이천시지편찬위원회를조직,이천문화원장및지역인사,국사편찬위원장 등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편찬위원회(인원 : 총 26명)를 구성·운영함

→집필진은 국내 인적인프라가 풍부한 서울·경기도 소재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 지역 향토사학자 등 총 92명이 참가함.

→본권 15편 6권과 자료집 1권 등 총 7권(면수 : 3,827쪽)으로 발간함.

→편찬 체제는 제1권 ‘자연과 역사’(제1편 자연/제2편 역사), 제2권 ‘인물과 문화유산’(제1편 성씨와 인물/제2편 문화유산), 제3권 ‘민속과 구비전승’(제1편 민

1 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利川市誌』(1~7)

속/제2편 구비전승), 제4권 ‘정치와 경제’(제1편 정치/제2편 행정/제3편 경제), 제5권 ‘사회와 문화’(제1편 사회/제2편 교육/제3편 문화), 제6권 ‘개인생활과 마을’(제1편 개인생활/제2편 가족/제3편 마을이야기), 제7권 ‘이천시지 자료집’(읍지/인물사료/고문서/가문소장문헌/이천시지편찬사 등)으로 구성함..

※2000년도 초반에 발간된 전국 시·군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서, 모범사례로 널리 평가 받음. 편찬 체제와 구성이 매우 뛰어난.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실고,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②경기도 광명시지(光明市誌, 2006)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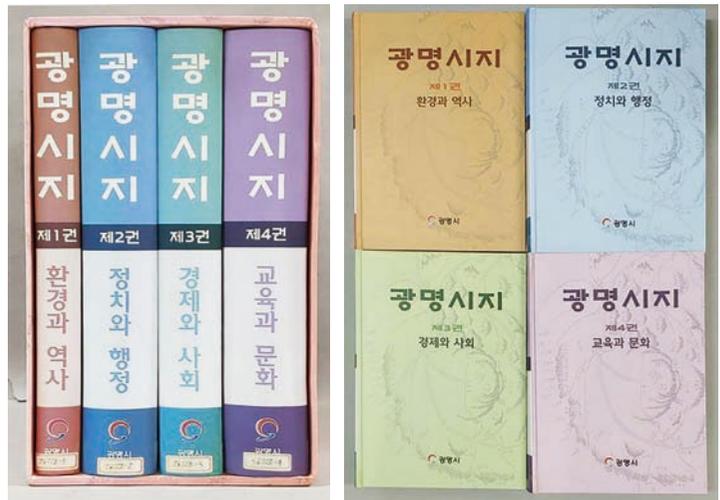
→1993년 『광명시지(광명시지)』 발간 후, 2004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06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완성함(13년 만에 재발간)

→광명시에서 광명시지편찬소위원회를 직접 조직·운영 및 집필함.

→본권 총 9편 4권(면수 : 2,316쪽)으로 집대성함.

→편찬 체제는 제1권 ‘환경과 역사’(제1편 환경/제2편 역사), 제2권 ‘정치와 행정’(제3편 정치/제4편 행정), 제3권 ‘경제와 사회’(제5편 산업·경제/제6편 사회·복지), 제4권 ‘교육과 문화’(제7편 교육/제8편 문화·예술/제9편 체육·청소년·여성·종교)로 구성함.

※편찬 체제와 구성은 비교적 양호함.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넣음. 편집디자인도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이루어짐. 단, 각 권 및 각 편의 원고 집필진 명단이 누락되어 집필원고에 대한 공신력이 다소 미흡함.



2 광명시, 2006, 『광명시지』(제1권~제4권)

③경기도 의왕시사(義王市史, 2007)³

→19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2002년 5월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07년 6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집대성함.(18년 만에 처음 시지 편찬·발간, 총 소요예산 : 5억 7,900만원)

→의왕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인사로 편찬위원회(인원 : 총 12명)를 구성·운영함.

→집필진은 국내 인적인프라가 가장 풍부한 서울·경기도 소재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 총 97명이 참가함.

→본권 13편 5권과 자료집 2권 등 총 7권(면수 : 4,457쪽)으로 발간함.

→편찬 체제는 제1권 ‘자연과 역사’(1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제2편 역사), 제2권 ‘인물과 문화유산’(제1편 성씨와 인물/제2편 문화유산), 제3권 ‘현대 정치와 경제’(제1편 정치와 행정/제2편 경제), 4권 ‘사회와 문화’(제1편 현대사회/제2편 교육·문화·체육), 5권 ‘마을이야기’(제1편 왜,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제2편 푸른 자연 속 아파트 숲 동네 내손·청계천/제3편 역사 향기 길게 뻗 고천·오전 권/제4편 환경보전과 개발의 기로에 선 부곡권/제5편 겉과 속), 제6권 ‘자료집’(제1편 지도/제2편 금석문/제3편 전근대 문집류/제4편 개인·기관 소장문헌/제5편 전근대 문학/제6편 민속자료/제7편 근현대알기/제8편 연표), 제7권 ‘사진으로 보는 의왕’(제1편 의왕의 산, 길, 호수/제2편 의왕의 어제와 오늘/제3편 나의 삶, 의왕이야기)으로 구성함.



3 의왕시·의왕문화원·의왕시사편찬위원회, 2007, 『의왕시사(義王市史)』(1~7)

※시사 편찬 작업의 충분한 시간 및 적절한 예산을 바탕으로 전체 편찬 기획과 체제 구성이 매우 뛰어남. 제1권 말미에 “의왕시사 편찬사”를 실어 시사편찬위원회 조직과 구성, 편찬사업 개요, 편찬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음. 또한 자료집 2권에 담은 각 내용들은 많은 고민과 정성이 깃들여 있음.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싣고,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2000년대 시·군·지 중에서 『이천시지』와 더불어 매우 우수한 시사편찬 성과물로 널리 평가·인정 받음.

④경기도 안성시지(安城市誌, 2011)⁴



- 1991년 『안성군지(安城郡誌)』 발간 이후, 2006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11년 12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집대성함.(20여 년 만에 시지 편찬·발간)
- 안성시에서 안성시지편찬실을 별도 신설·조직함.
- 안성시장 및 안성문화원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외부 인사로 편찬위원회(인원 : 총 16명)를 구성·운영함.
- 집필진은 국내 인적인프라가 가장 풍부한 서울·경기도 소재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 총 87명이 참가함.
- 본권 21편 5권과 자료집 3권 등 총 8권(면수 : 4,744쪽)으로 집대성하여 완성함.
- 편찬 체제는 1권 ‘역사와 지리’(1편 연혁/2편 지리/3편 역사), 2권 ‘안성의 자

4 안성시·안성문화원, 2011, 『안성시지』(1~8)

랑'(1편 문화재 현황/2편 문화유산/3편 관광 자원), 3권 '성씨와 마을'(1편 성씨/2편 마을/ 3편 생애사), 4권 '민속과 전통'(1편 일상생활/2편 생산 풍속/3편 세시 풍속과 놀이/4편 관혼상제/5편 마을 신앙/6편 구비전승/7편 남사당과 예인 문화), 5권 '안성의 현재'(공공복지와 참여/2편 지방 자치와 선거/3편 행정과 공공 기관/경제활동/5편 교육/문화), 6권 '인물자료집'(1편 근현대 이전 인물/2편 근현대 인물), 7권 '문헌자료집'(1편 고지도자료/2편 연대기자료/3편 읍지자료/4편 문집자료/5편 금석문자료/6편 고문서자료/7편 근현대자료), 제8권 '사진자료집'(1편 안성 풍광/2편 안성주민의 옛 생활)으로 구성함.

※시지 편찬 작업의 충분한 시간 및 예산을 바탕으로 전체 편찬 기획과 체제 구성이 매우 뛰 어남. 각 본권마다 주제 내용에 맞는 편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함. 자료집 3권은 풍부한 각종 자료를 안성시의 특징에 맞게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함.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 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실고,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게 효과적 으로 이루어짐. 2010년대에 발간된 전국 지자체의 시·군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물로 평가 받고 있음.

⑤강원도 양양군지(襄陽郡誌, 2010)⁵



→1990년 『양주지(襄州誌)』 발간 이후, 200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10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완성함.(20년 만에 현 양양군 행정명으로 편찬·발간)

→양양문화원에서 전체 편찬사업을 주도하여 양양군지편찬위원회(인원 : 12명)를 조직함.

→양양문화원장 및 지역인사 중심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5 양양문화원·양양군지편찬위원회, 2010, 『襄陽郡誌』(上·下券)

→집필진은강원도 소재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 지역 향토사학자, 서울·경기지역 소재 일부 대학교수 등 총 44명 참가함.

→총 11편 본권 2권(상·하권, 면수 : 2,297쪽)으로 집대성함.

→편찬 체제는‘상권’(제1편 역사/제2편 자연·인문환경/제3편 정치·행정/제4편 교육·종교/제5편 산업·경제/제6편 관광·체육), ‘하권’(제7편 민속·문학·예술/제8편 문화재·지명유래/제9편 건설·교통,재난·재해/제10편 보건·복지·기관 단체/제11편 성씨·인물/부록-문헌자료)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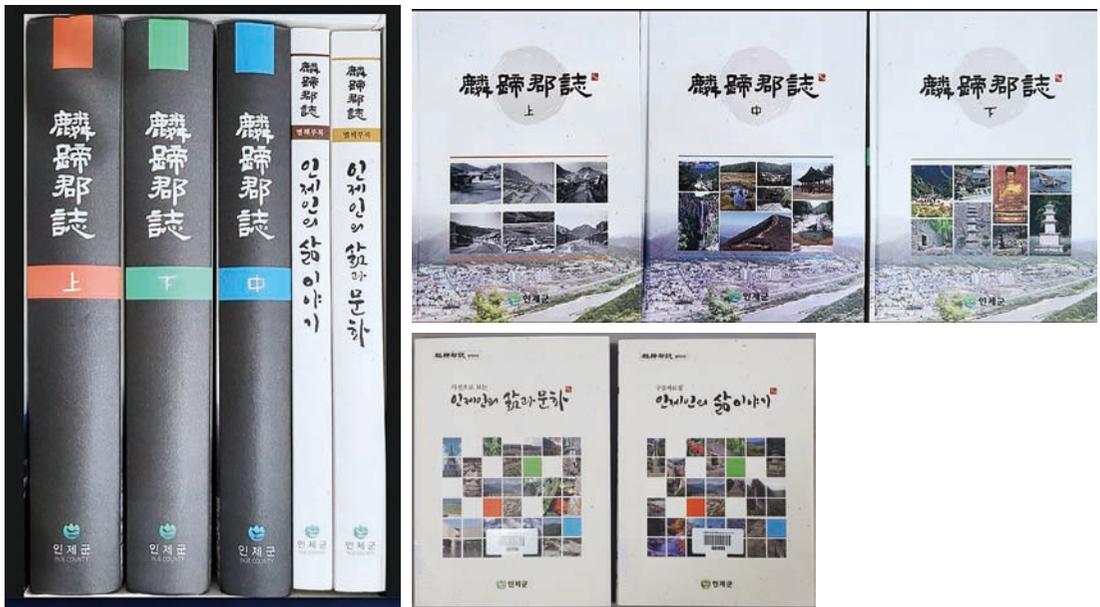
※기존의 『양주지』(1990) 단행본 보다 질적·양적으로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함. 편찬 작업 시간과 지원 예산이 타지역(특히 경기도 지역)에 비해 부족함. 본문 내용에 관련 사진이나 그림·삽화 등의 시각적 이미지 자료가 소략해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이 다소 떨어짐. 또한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대적 감각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음.

⑥강원도 인제군지(麟蹄郡誌, 2017)⁶

→1980년 『인제군지(麟蹄郡誌)』, 1996년 『인제군사(麟蹄郡史)』 발간 이후,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완성함.(20여 년 만에 군사(郡史)에서 군지(郡誌)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발간, 총 소요 예산 : 약 5억원)

→인제군에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에 편찬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함.

→인제군 부군수 및 강원대 연구책임자,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인제군지편찬



6 인제군, 2017, 『麟蹄郡誌』(상·중·하·부록)

위원회(인원 : 총 11명)를 구성·운영함.

→집필진은 강원도 소재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 지역 전문가 및 향토사학자 일부 등 총 41명 참가함.

→본권 11편 3권(상·중·하권)과 자료집 2권 등 총 5권(면수 : 2,627쪽)으로 집대성함.

→편찬 체제는 ‘상권’(제1편 역사/제2편 자연·인문환경/제3편 정치·행정·사법), ‘중권’(제4편 산업·경제·사회간접자본/제5편 관광·축제·체육·국제교류/제6편 문화·사회·복지/제7편 교육·종교/제8편 성씨·인물), ‘하권’(제9편 민속·지명/제10편 언어·문학·예술/제11편 문화유산), ‘별책 부록-1’(구술자료집 : 인제인의 삶이야기), ‘별책 부록-2’(사진으로 보는 인제인의 삶과 문화)로 구성함

※군지 편찬 사업기간이 다소 짧으나 적절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전체 편찬 기획과 체제 구성이 매우 뛰어남. 각 본권에 11편의 원고 내용을 적절히 분류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함. 자료집 2권은 인제군의 정체성에 부합되게 근현대의 구술자료와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함. 군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싣고, 편집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대적 감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2010년대 강원도 지자체에서 발간한 시·군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음.

⑦강원도 영월군지(寧越郡誌, 2019)⁷



→2002년 『영월군지(寧越郡誌)』 발간 후, 2018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완성함.(17년 만에 재발간, 총 소요 예산 : 약 1억 7천만원)

7 영월군, 2019, 『영월군지(寧越郡誌)』(1~3)

→영월군에서 제안서평가 용역 발주를 통해 강원도민일보사가 최종 선정되어 편찬 용역을 수행함.

→영월군 부군수 및 지역인사, 강원도민일보 출판부국장 등 소수 인원으로 편찬위원회(인원 총 : 7명)를 구성·운영함.

→집필진은 강원도소재 대학 교수 및 관계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 총 14명 참가함.

→본권 10편 2권과 부록(자료집) 1권 등 총 3권(면수 : 1,918쪽)으로 집대성함.

→편찬 체제는 ‘1권’(제1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제2편 역사/제3편 정치·의회·행정/제4편 사법·치안·행정/제5편 산업·경제), ‘2권’(제6편 사회복지/제7편 교육·종교/제8편 문화재·관광/제9편 민속·설화·민요/제10편 성씨·인물), ‘3권’(부록 : 옛 향토지를 통해 본 영월군)으로 구성함..

※군지 편찬의 전체 기획과 구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사업 기간과 지원 예산이 매우 짧고 부족함. 각 본권에 10편의 원고 내용을 적절히 분류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함. 자료집 1권은 영월군 역사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내용을 수록하였음. 군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싣고, 편집디자인은 시대적 감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⑧강원도 고성군지(高城郡誌, 2020)⁸



8 고성군, 2020, 『고성군지(고성군지)』(상·중·하·별책부록)

→1985년 『고성군지(高城郡誌)』, 1996년 『고성군지(高城郡誌)』 발간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완성함.(24여 년 만에 재발간, 총 소요 예산 : 약 6억원)

→고성군에서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에 편찬용역 의뢰하여 수행함.→고성군수 및 강원학연구센터장,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편찬위원회(인원 : 총 11명)를 구성·운영함

→집필진은 강원도 소재 대학교수 및 관계 전문가, 향토사학자 등 총 40명 참가함.

→본권 11편 3권(상·중·하권)과 자료집 3권 등 총 6권(면수 : 3,830쪽)으로 집대성함.

→편찬 체제는 ‘상권’(제1편 역사/제2편 자연·인문환경/제3편 정치·행정·사법), ‘중권’(제4편 산업·경제·사회간접자본/제5편 관광·축제·체육·국제교류/제6편 문화·사회·복지/제7편 교육·종교/제8편 성씨·인물), ‘하권’(제9편 민속·지명/제10편 언어·문학·예술/제11편 문화유산), ‘별책부록-1’(사료로 읽는 고성), ‘별책부록-2’(구슬로 듣는 고성), ‘별책부록-3’(사진으로 보는 고성)으로 구성함.

※군지 편찬 사업기간이 다소 짧으나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전체 편찬 기획 운영과 체제 구성이 매우 뛰어남. 각 본권에 11편의 원고 내용을 적절히 분류하여 합리적으로 재구성함. 자료집 3권은 고성군의 정체성에 부합되게 역사 문헌자료와 근현대의 구술자료 및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함. 군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분한 사진과 적절한 그림·삽화를 실고, 편집디자인은 시대적 감각에 어울리게 매우 산뜻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최근까지 강원도 지자체에서 발간한 시·군지 중에서 『인제군지』와 함께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속초시지의 편찬 방향 및 활용 방안

1)1991년 발간된 『속초시지(束草市誌)』 편찬 체제와 구성⁹

→1963년 1월 1일 시(市) 승격 이후, 1989년 11월부터 1991년 10월까지 만 2년에 걸쳐 완성함.(26여 년 만에 처음 시지 편찬·발간)

→속초문화원장 및 지역인사, 지역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시지편찬위원회(인원 : 총 16명)를 구성·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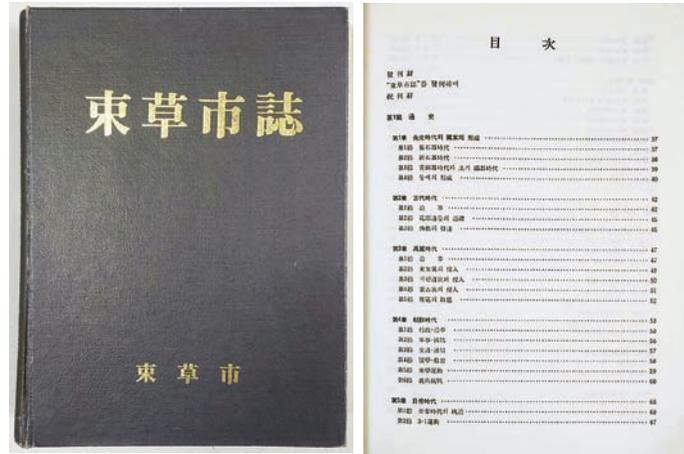
→원고 집필은 강원 영동지역 대학교수 및 지역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가함.

→전체 11편 총 1권(면수 : 1,345쪽)으로 집대성함.

→편찬 체제는 제1편 통사, 제2편 자연환경, 제3편 정치·행정, 제4편 경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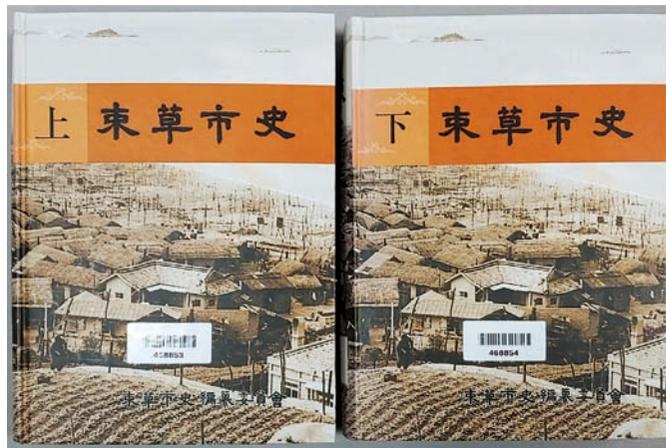
9 속초시, 1991, 『束草市誌』

업, 제5편 관광·수산, 제6편 보건·사회, 제7편 교육·체육·종교·언론, 제8편 문화·예술, 제9편 민속·설화·방언·문화재, 제10편 지명, 제11편 인물'로 구성함.



※본문 앞에 속초의 정체성 및 변천 모습과 연관된 사진 화보를 실어 그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인문환경' 및 도로·철도·항만·통신·전력·공공서비스등의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편찬 목적차와 집필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미흡함. 1990년대에 강원도 제 지역에서 편찬·발간된 여러 시·군지(市·郡誌)와 거의 비슷하게 대체로 무겁고 딱딱한 권위주의적 스타일로 편집디자인 및 인쇄로 이루어져 시대적 한계와 경향을 보이고 있음.

2)2006년 발간된 속초시사(東草市史) 편찬 체제와 구성¹⁰



→1991년 『속초시지(東草市誌)』 발간 이후,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약 1년 걸쳐 완성함.

10 속초시지편찬위원회, 2006, 『東草市史』(上·下)

- ‘시지(市誌)’에서 ‘시사(市史)’로 명칭을 변경해 약 15년 만에 재발간함.
- 속초문화원장 및 부시장, 지역인사, 지역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시지편찬위원회(총 12명)를 구성·운영함.
- 원고 집필은 강원도 소재 대학 교수 및 지역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가
- 본문 9편과 부록 3편 등 본권 12편 총 2권(상·하, 면수 : 2,147쪽)으로 집대성함.
- 편찬 체제는 ‘상권’(제1편 자연환경/제2편 역사/제3편 정치행정/제4편 교육사회/제5편 산업경제/제6-1편 관광/제6-2편 수산), ‘하권’(제7편 문화예술/제8편 생활관습/부록 1-인명/부록-2 연표/부록-3 옛 문헌자료)로 구성함.

※상권 앞부분에 고지도와 속초 변천 모습과 관련된 각종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그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 1년이라는 매우 짧은 편찬사업 기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으나, 1991년 발간된 시지(市誌) 보다 질적·양적으로 한층 발전됨. 그러나 ‘인문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편찬 목차와 집필내용이 누락되거나 소략함. 또한 각 편에 수록된 장·절의 원고 집필 내용과 각 편의 제목과의 이질성이 나타남. 2000년대 강원도 제 지역에서 편찬·발간된 여러 시·군지(市·郡誌)와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편집디자인 및 인쇄로 이루어져 시대적 한계와 경향을 보이고 있음.

3)향후 발간될 『속초시지(束草市誌)』 편찬 방향 및 활용 방안

◇편찬 방향

→ 『속초시지』 편집 방향은 과거부터 그동안 변화된 속초의 모습을 기존 자료와 새롭게 발굴된 각종 자료 및 연구 성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속초의 과거와 현재를 올곧게 집대성하여 편찬해야 함.(역사 편찬의 기본 대원칙)

→ 속초의 과거 발자취부터 오늘날까지 각 분야의 변천과정에 대한 다양한 각종 자료(기초자료·연구자료 등)를 최대한 수집·분류·정리해, 시지편찬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속초시지의 편찬 목차 체제와 부합되게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도록 해야 함.(역사 편찬의 핵심 요건)

→ 아울러, 속초의 ‘보편성’과 속초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고유성·특징)’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수록해 ‘속초의 정체성’ 구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 함.(역사 편찬의 기본 목적)

→ 『속초시지』 편찬사업은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예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원고 집필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대학교수 및 기관 전문가, 지역 전문가 및 향토사학자 등)를 동원·활용하여 진행해야 함.(역사 편찬의 공신력 확보)

→ 『속초시지』 편찬은 시대감각에 걸맞게 참신하고 뛰어난 편집디자인이 적극 반영되어 최종 발간되도록 해야 함.(역사 편찬의 완결성 증대)

→이를 위해 『속초시지』 편찬의 편집디자인·인쇄 작업은 ‘제안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속초시지』 편찬사업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결국, 향후 발간될 『속초시지』는 강원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인정받음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혁신적 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

◇활용 방안

→속초의 과거와 현재를 집대성한 『속초시지』는 향후 속초의 미래도시 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연구 기초자료로서 뿐 아니라 속초 지역민(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위한 여러 단체(문화원, 시립박물관, 평생교육문화센터, 시립도서관, 문화관광재단, 교육지원청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양교육(강좌) 및 교재제작의 기본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함.

→ 『속초시지』 편찬·발간 이후, 후속 사업으로 『디지털 속초시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속초시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속초시민 뿐 아니라 출향인들이 과거와 현재의 종합적인 속초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긍심과 애乡심을 고취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함. 또한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속초의 홍보·마켓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속초시지』 편찬 이후, 속초의 주요 특성을 추출하여 ‘주제사(개별사)’ 발간 사업을 『속초시 역사문화 총서』 시리즈로 기획,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예 : 경기도 하남시 ‘하남역사총서’ 연속 발간/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역사총서’ 연속 발간/강원 춘천시 시사편찬위원회-본권 10권과 주제사 20권 등 총 30권 발간사업 계획·추진 중)

→ 『속초시지』 편찬은 지역학으로서의 ‘속초학(束草學)’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시대적 트렌드인 ‘속초학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연계 활용,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속초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세밀한 계획 하에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확보와 함께 전문 인력(최소 1~2명)을 채용하여 과거부터 현대까지 생산된 속초 관련 모든 자료를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상시 운영해야 함.(현재 전국 일부 지자체가 지역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선도적·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됨).

속초문화

‘속초’ 지명의 음운론적 고찰

최재도

(속초문화원 부설 속초학연구소 소장)

1. 속초지명 유래 통설

‘속초’라는 지명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명감 높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문화해설사나 향토사교육 강사들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 또한, ‘속초’라는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자 작성된 것이다. 지명의 생성 과정을 밝혀 음운론적으로 이를 설명해 보려 한다.

우선,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부터 살펴보자. 여기에는 ‘속초’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속초(束草) 땅이름 어원의 유래>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는 4가지이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는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이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다.

둘째, 영금정과 관련된 전설로,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셋째, 풍수지리학상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끈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끈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자로 ‘묶을 속(束)-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와 전설 중에서 지금까지의 정설은 첫 번째 것이다. 참고적으로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을 보면 “속초를 일명 속새, 속진(束津)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며, 1912년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리지자료』에도 속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설 외에도, 최근에는 “모래를 묶는다.”라는 뜻의 ‘속사(束沙)’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주장도 대두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에서는 이렇듯 여러 가설 중 ‘속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을 정설이라 내세우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속새’라는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데 그것이 어찌 한 도시의 대표 지명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들은 ‘속새’라는 풀은, 늪지대나 강변 같은 습한 지형에서 자라는 식물이므로, 습지가 없는 속초에서는 생육할 수 없는 식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들은, ‘束草’라는 한자 지명은 고려시대 문헌에서도 등장하지만, ‘속새’라는 한글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지리지자료>에서야 최초로 등장하므로, ‘束草’라는 한자 지명이 먼저 생겨났고, ‘속새’라는 지명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지명은, 역사학자들만이 아니라, 지리학이나 언어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크로스 체크를 통해 협동 연구하여야 할 분야이다. 특히 국어학자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같은 오류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명의 변형, 그 한 양태

태초에 우리만이 쓰던 고유한 언어가 있었다. 사람 이름이나 산천 이름이나 마을 이름 등은 모두 우리의 고유말로 지어 붙였다. 다만 문자가 없었기에, 이를 표기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없이 다른 나라 글자를 빌어, 때로는 그 뜻을 찾아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음을 차용해 쓰기도 하며, 때로는 이 둘을 혼용해 쓰기도 했다. 이마

저도 힘들면 비슷한 발음이나 뜻을 가진 문자로 대체하기도 했다. 우리말 고유 이름들은 이렇듯 문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그 원래의 뜻과 발음을 잃어버리기 부지기수였다.

種別地名	江原道	襄陽郡	面	致
酒巖名	靈峽坪酒巖	반부곡읍	所川面	靈峽坪里
湯湍酒巖	물치읍	降仙面	湯湍里	
宅村酒巖	뒤말읍	宅村		
酒巖酒巖	솔향거리읍	沙峴面	酒巖里	
松岩里酒巖	송암리읍	郡內面	松岩里	
越洞酒巖	물근내읍	越洞		
舉石街酒巖	돌들거리읍	西	白良義里	
桃木亭酒巖	복상나부정읍			
松亭之酒巖	솔정지읍		五色里	
如雲川酒巖	연기읍		葛川里	

<그림1> <조선 지지(地誌) 자료> 강원도편 양양군 365쪽

이 문서(그림1)는 <조선 지지(地誌) 자료> 강원도편 양양군 365쪽이다. <조선지 지 자료>¹는 일제시대에 발간된 자료로, 한글 지명과 한자 지명이 나란히 기재되어 지명연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서다. 일제는 통치 자료로 쓰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 관청에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고, 지방 관리들은 그 양식에 맞춰 수기(手記)로 해당 내역을 작성해 제출했다. 일제는 이를 모두 모아 <조선지 지 자료>라는 책을 간행한 것이다.

1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조선지 지 자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 54책의 필사본 지지(地誌) 자료이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통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호구와 토지조사에 매진했다. 통감부의 주도로 1909년 3월에 민적법이 공포되면서 내부경무국은 민적실사에 착수했고, 경찰과 헌병의 원조 아래 1910년 5월에는 민적부(民籍簿)를 완성했다. 을사늑약 직후인 1910년 9월에는 1,293만 명의 인구를 조사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가 발행되었다. 한편으로 1910년 초에 대한제국에 설치된 토지조사국은 조선총독부에서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되어 토지조사사업을 주도했고, <조선지 지 자료>는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선행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양양군 관내 주막집들이 명기되어 있다. 이 중 한자어 이름과 한글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송암리’와 ‘물치’밖에 없다.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 칸의 ‘들돌거리’라는 지명은 ‘擧石街’가 되었다. ‘들擧’ ‘돌石’ ‘거리街’ 뜻을 따라 직역한 것이다. 아마 마을 거리에 ‘공중에 떠 있는 듯이 보이는 바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옆 ‘물근내’ 주막도 그러하다. ‘물근내’는 ‘물 건너’의 양양식 발음이니, ‘물 건너 골짜기’라는 뜻의 한자 ‘越洞’으로 대체했다. 이런 경우는 한글 지명의 뜻을 정확히 알 때 쓰는 방식이다.

한편 ‘연늪’은 ‘연’에 해당하는 한문 대신 비슷한(近似) 발음을 찾아 ‘如雲’이라고 표기했고, 이어 ‘늪’도 ‘내 천’자를 써서 ‘如雲川’이라는 아주 엉뚱한 이름으로 변했다. 짐작컨대 한글로 ‘연늪’라고 표기하기는 했지만, 현지 발음으로는 ‘여운’에 가깝게 발음했을 수도 있다. 즉 ‘여분내’이라 발음했는데, 이때는 ‘뉘’이라는 발음과 문자가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하는 수 없이 ‘연늪’라고 썼고,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원래 발음을 찾아 표기했으리라 추측할 수도 있다.

酒廳, 宅村도 마찬가지로 뜻을 모르는 말은 음(音)으로, 뜻을 아는 말은 훈(訓)으로 표기했다. 술청 마을이 酒廳이 되고 톱마을이 宅村이 되었다. ‘술청’의 ‘술’은 ‘酒’로, ‘톱마을’의 ‘마을’은 ‘村’으로 바꾸었으나, ‘청’과 ‘톱’은 한자 발음 그대로를 차용한 것이다

‘복상나무정’도 ‘복상나무’는 ‘복숭아나무’라는 뜻의 ‘桃木’으로, ‘정’은 그냥 발음을 따라 ‘亭’으로 옮겼다. ‘솔정지’도 ‘솔’만 松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音)만 빌려 ‘松亭之’가 된다. ‘반부둑’도 ‘둑’이 ‘들’을 의미하므로 ‘坪’으로 번역하고 ‘반부’는 의미를 알 수 없거나 해당되는 한자어가 없으므로 그냥 음(音)만 차용해 ‘소반 盤’자에 ‘도울 扶’ 즉 ‘盤扶坪’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고유 지명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단순히 한자를 직역해서는 도저히 그 유래를 살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반복해 말하지만, 지명은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순우리말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이걸 문서에 기록하기 위해 소위 ‘이두식 표기’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처럼 엉뚱한 한자어로 전환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명칭을 지정할 때에는 처음부터 한자 이름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행정구역 통폐합 등의 사유로 마을 이름을 새롭게 호칭해야 할 때나, 정책적 목적으로 신도시를 형성할 때 정도였다. 또는, 사대부나 풍수가가 작명한 한자 이름이,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우리말 이름과 병행해 쓰이다 나중 한자 지명만 남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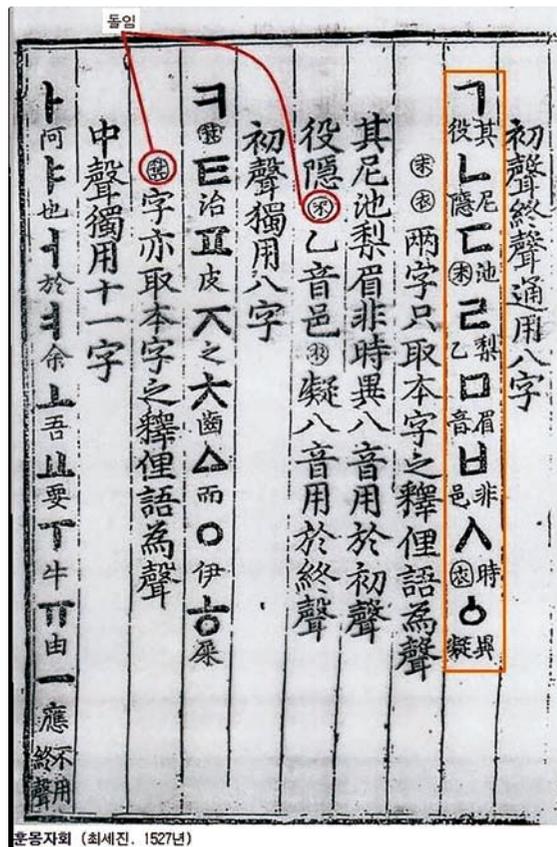
위 사례에서 우리말 이름과 한자어 표기가 일치하는 ‘송암리’는, 애초부터 ‘松岩’이라는 한자어 이름으로 불렸거나, 예전에는 ‘솔바위’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불렸으

나, 이 서류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미 한자어 이름인 ‘송암’이 민간에서도 널리 쓰여 질 만큼 그 이름이 굳혀진 상태였을 것이다. ‘물치’ 또한 한글 지명과 한자 지명이 일치하는데, 이는 본디 ‘물치’라는 순 우리말 지명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냥 훈(訓)을 따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자로는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데다, 문헌마다 ‘물’자가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기 때문이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물론, 한글 창제 이후에도 관청에서는 한글을 쓰지 않았다. 중앙관청에서는 당연히 한자를 썼고, 지방관청에서는 신라시대 이래 ‘이두식 표기’를 주된 표기방식으로 삼아 왔다. 훈민정음은 창제 직후 그대로 사장되었다가, 조선 중기에 와서야 민간에서 알음알음으로 활용되었고, 관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말기에 이르러서다. 지명 해석의 오류가 대부분 여기에서 발원한다. 순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해 놓은 탓에, 오늘날 잘못된 해석이 덧붙여지기 일쑤이다.

3. 이두식 표기의 이해

지난 시대에는 이런 표기법이 일반적이었다. 우리글이 창제되기 전, 창제된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문서를 기록했다.



<그림2> 훈몽자회

이 문서(그림2)는 최세진이 1527년 작성한 ‘훈몽자회’의 한쪽이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자모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최세진이 이름과 순서를 정했다.

‘ㄱ’이라 써놓고 그 밑에 ‘其役’이라고 한자로 적어놓았다. ‘ㄱ’이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것인지 설명한 것으로, 초성으로 쓰일 때는 ‘기’의 맨 처음 소리이고, 종성으로 쓰일 때는 ‘역’의 맨 나중 소리라는 얘기다. ‘ㄴ’ 尼隱은 ‘니’의 첫 소리이자 ‘은’의 마지막 소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ㄷ’의 설명은 좀 이상하다. ‘地末’이라 써 놨다. ‘地’는 중세 국어에서 ‘디’로 읽혔다. ‘디’의 첫소리라는 것이다. ‘末’에는 동그라미를 쳐놨다. 훈독을 하라는 의미다. 末은 ‘끝 말’자이다. 즉 훈(訓)은 ‘끝’이고, 그 음(音)은 ‘말’인 것이다. 동그라미 표시를 한 곳은 훈으로 읽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끝’이라 읽는다. 아마 중세국어에서는 ‘끝’으로 발음했던 모양이다. 즉 ‘끝’의 마지막 발음이 바로 ‘ㄷ’이라는 의미다.

‘ㅅ’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한다. ‘時衣’라고 써 놨지만 ‘시의’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시옷’으로 읽어야 한다. ‘衣’에 동그라미를 쳐 표시를 해놨으니 훈독을 해야 되는데 ‘衣’의 훈은 ‘옷’이다. 즉 ‘시옷’의 초성과 종성에 해당되는 소리라는 의미다.

‘ㅋ’도 ‘箕’이라 써 놨으나 ‘기’가 아닌 ‘키’라고 읽어야 한다. 곡식을 까부는 도구를 ‘키’라고 하는데, 箕가 바로 키를 의미하는 글자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곳은 우리 뜻을 따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음 ‘으’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應이라 써놓고 ‘不用終聲’이라 병기해 놓았다. ‘응’에서 종성 즉 받침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응’에서 받침을 빼면 ‘으’만 남는다. 곧 ‘으’로 발음하라는 말이다. ‘으’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없기에 이렇듯 ‘응’으로 써놓고 ‘으’로 발음하라 이른 것이다. 옛글에는 이런 식의 표기가 부지기수로 나온다.

이렇게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훈독과 음독을 섞어 썼는데 이를 통칭해 ‘이두식 표기’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두’와 ‘향찰’과 ‘구결’은 명백히 다른 것이나, 조선 초기에는 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이 표기방식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두로 표기된 이성계의 호적이 아직 남아있다 하니, 아마도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호적도 이두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런 방식의 차자(借字)표기가 지속되었다. 조선시대 관청 아전들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빌려온 글자’를 쓸지언정 ‘우리의 문자’는 쓰지

2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조선 시대의 역관인 최세진이 1527년에 쓴 한자 학습서이다. 한자 3,360자에 뜻과 음을 훈민정음으로 단 것이 내용이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한글 낱자에 기역, 니은 등의 이름을 붙였다. 한자는 뜻과 관계없이 소리만 빌려서 해당 자모의 첫소리와 끝소리를 나타내도록 하였고, 알맞은 한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새김으로 읽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시옷에 해당하는 한자 衣는 원본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뜻인 ‘옷’으로 읽게 하였고, 末도 근(끝)으로 읽게 하였다) 각 글자 밑에 기역 其役, 니은 尼隱, 디근 池○末, 리을 梨乙, 미음 眉音, 비음 非邑, 시옷 時○衣, 이음 異擬, “키 ○箕, 티 治, 피 皮, 지 之, 치 齒, 而, 이 伊, 히 屎”, “ㄱ 阿, ㄴ 也, ㄷ 於, ㄹ 余, ㅁ ㅍ, ㅂ 要, ㅅ 牛, ㅇ 由, ㅡ 應不用終聲, ㅣ 伊只用中聲, ㆍ 思不用初聲”과 같은 표기가 있다.

않았다. 노비문서나 땅이름(地名)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표기했다.³

여기서 잠시 고등학교 국어시간으로 되돌아 가보자. 아래의 시(詩)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신라 향가 ‘처용가’다.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隱吾下於叱古
 二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乙何如爲理古

한글이 없던 시절, 경상도 말로 부르던 노래를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자를 빌어 적었다.

맨 첫 구절을 현대 우리말로 읽으면, ‘동경명기월량’이다. 그러나 신라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았다. ‘식불 불기 드래’라고 읽었다는 것이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서울 밝은 달밤에’라는 뜻이라 한다. 어떻게 동경명기월량(東京明期月良)이 ‘식불 불기 드래’가 될까? 東京은 서라벌 곧 ‘서울’을 뜻하는 번역어이다. 明은 ‘밝을 명’이다. 여기에서 혼독을 해 ‘발’로 읽는다. 期는 음을 그대로 읽어 ‘기’이다. 月은 ‘달’이라는 뜻이다. 良은 ‘~에’라는 처소격 조사의 이두식 표기이다. 그래서 ‘식불 불기 드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말을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한자로 적기 위해 이처럼 혼과 음을 총동원해 암호처럼 풀어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구절 ‘夜入伊遊行如可’를 보자. 이건 ‘밤드리 노니다가’로 읽었다 한다. ‘밤 늦도록 노닐다가’라는 뜻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夜는 ‘밤’이란 뜻이다. 즉 뜻을 밝혀 쓴 것이다. 入도 ‘들 입’, 곧 들어간다는 뜻이다. 伊는 ‘저 이’자인데, 여기서는 음(音)으로 읽었다. 그래서 ‘夜(밤)入(들)伊(이)’가 ‘밤드리’가 된다. 夜와 入은 혼

3 차자(借字) 표기 방식으로는 음독자(音讀字), 혼독자(訓讀字), 음가자(音假字), 훈가자(訓假字) 등이 있다. ‘독자(讀字)’는 한자를 원래의 의미를 살려 음이나 새김을 차용한 것이고, ‘가자(假字)’는 한자 원래의 의미를 버리고 음이나 새김의 발음만 빌려서 표음문자로 사용한 것이다. 즉 음독(音讀)은 한자의 본래 음을 살려 읽는 것, 혼독(訓讀)은 우리말 뜻을 새겨 읽는 것이며, 음가자(音假字)는 음을 빌려온 글자, 훈가자(訓假字)는 뜻을 빌려온 글자라는 뜻이다.

① 음독자(音讀字) : 告目/고목, 根脚/근각, 衿記/깃기, 卜數/짐수.

② 혼독자(訓讀字) : 進賜/나리, 流音/흘림, 所/바, 事/일, 者/(으)ㄴ, 以/로, 中/귀.

③ 음가자(音假字) : 亦/이, 乙/(으)ㄴ, 果/과, 段/단. 那/나, 只/기, 弥/며, 隱/은.

④ 훈가자(訓假字) : 是/이, 以/(으)로, 爲如/다, 爲去等/하거든, 無去乙/업거늘, 爲白如乎/다운(하엿사옵 거니와), 爲白良結/아져(하옵고자), 爲有如可/잇다가(하엿다가), 爲只爲/기암(하기 위하여), 爲去等/거든, 爲去乃/거나.

으로, 伊는 음으로 읽은 것이다. 이게 바로 ‘향찰’이라는 것이다. 지난 시대엔 이런 식의 표기가 일반적이었다.

4. 지명에서의 이두식 표기

이웃동네 지명을 통해 이를 좀 더 살펴보자.

고성군에서는 매년 향토축제로 ‘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수성문화제? 왜 고성문화제가 아니고 수성문화제라고 호칭할까? 그렇다. 고성군의 옛 이름이 수성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느 자료에 나온 ‘고성의 연혁’ 중 일부다.

- 고구려시대 : 고성군은 달홀(達忽)이었고, 간성군은 수성군(水城郡)이라 하였으며, 가라홀(加羅忽)이라고도 했다.
- 통일신라시대 : 진흥왕 29년(568년)에 달홀(達忽)을 주(州)로 삼으면서 군주(軍主)를 두었으며, 경덕왕 16년에 고성군으로 하였다. 수성군(水城郡)도 이 때 수성군(守城郡)으로 고치면서 두 군을 명주도독부에 소속시켰다.
- 조선시대 : 고성현은 세종 때에 군으로 승격시켰으나, 인조 7년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9년 뒤에 다시 군으로 승격되었다. 군명은 달홀, 풍암(豊巖) 등이라고 했다. 고종 32년(1895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두 군이 강릉부 관할이 되었으나, 이듬해에 강원도 관할이 되었으며, 이 때 고성군이 간성군에 흡수되었다. 군명을 수성(水城), 가로홀(加羅忽), 수성(守城), 목성(木城) 등이라고 불렀다.
- 일제강점기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간성군에 통합되었으나, 1919년 간성군을 폐지하면서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을 양양군에 이관하고, 다시 고성군을 창설하였다.

고성군과 간성군은 전통적으로 별개의 도시였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성군이 간성군에 흡수되었다. 간성군은 1919년에 이름을 다시 고성군으로 개칭해 오늘에 이른다. 이 연표에 의하면 고구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달홀’ ‘가라홀’ ‘수성’ 등의 지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수성’은 ‘매홀’로도 쓰였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홀’이 ‘고성’이 되고, ‘매홀’이 ‘수성’이 된 걸까. 다음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전공과목인 ‘국어사(國語史)’ 교재의 한 대목이다. 집필자는 서울대학교 장소원 교수다.

고구려어

오늘날 남아 있는 고구려어 자료는 내외 사적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三國史記

> 地理志는 그 주된 자료이다. 이 책의 卷37이 기본자료이고 卷35도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권37에는 하나의 지명에 대하여 음독명과 석독명이 병기되어 있다. 음독명이란 한자의 뜻과는 관계 없이 그 발음으로 읽는 표기를 말하며, 석독명이란 한자의 새김으로 읽는 표기를 말한다.

(1) 貫忽 一云 水城

(2) 水谷城縣 一云 貫忽

이 중 (1)에서는 음독명(貫忽)이 앞에 있고 석독명(水城)이 뒤에 있으며, (2)에서는 석독명(水谷城)이 앞에 있고 음독명(貫忽)이 뒤에 있다. 여기서 고구려의 언어에서는 물(水)을 ‘매’(貫)라 했고 성을 ‘홀’(忽)이라 했으며 골짜기를 ‘단’(谷)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1)의 水城, (2)의 水谷城을 漢譯名(중국식으로 번역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위의 지명표기들은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새김으로 읽기도 하여 ‘천’이라 써 놓고 ‘하늘’이라 읽었던 방법이 고구려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1)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貫忽’이라고 쓰든지 ‘水城’이라고 쓰든지 다같이 ‘매홀’이라고 읽혔다는 것이다.

위 내용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매홀(貫忽)은 수성(水城)이라고도 한다’라는 대목과 ‘수곡성현(水谷城縣)은 일명 매단홀(貫忽)이라고도 한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 ‘매홀’은 순 우리말이다. 그러나 고구려 시대 때엔 우리글이 없었으므로, 한자음 중 ‘매홀’과 발음이 비슷한 ‘貫忽’로 쓰기도 했고, 또는 이를 한자의 뜻으로 번역해 ‘水城’이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물’을 ‘매’라 했고, ‘성’을 ‘홀’이라 했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주의할 것은 貫忽로 표기했든지, 水城으로 표기했든지 간에 당시 사람들은 모두 ‘매홀’로 읽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달홀’은 ‘높은 고을(성)’의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고, ‘매홀’은 ‘물의 고을(성)’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우리글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표기했으나, 어떡하든 그 본래의 발음인 ‘달홀’과 ‘매홀’을 지키려 애썼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 문자만 남고 발음은 사라져, 그냥 ‘고성’과 ‘수성’이 되고 만 것이다. 다행히도 이 경우는 이처럼 문헌의 기록과 국어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그 어원이 확연히 밝혀졌다.

불행히도 순우리말 지명의 경우, 대부분 그것이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언어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인 ‘자의성’ 때문에 그렇다⁴. 현존하는 지명 중 상당수는 그 뜻이나 유래를 알 수 없다. 그 지명이 오래된 것일수록 그렇다. 그러나 지명 연구에 있어 별다른 지식도 없이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지극히 삼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자말을 그대로 풀어서 적당히 의미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4 일반적으로 인간언어의 특성으로 기호성, 자의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 등을 든다.

이웃마을 지명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 한계령이니 오색령이니 하는 고갯길의 옛 지명은 ‘밭드라재’이다. 한자로 所等羅嶺 또는 所冬羅嶺이라 한다. ‘밭드라’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순우리말임에 분명하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독과 훈독이 두루 이루어진다. ‘밭’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으므로 ‘바 소(所)’자의 훈을 차용했다. ‘드’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으므로, 等 또는 冬이라는 한자의 음을 차용했다. ‘라’ 역시 음을 빌려왔다. ‘재’는 그 뜻에 해당되는 한자로 번역했다. 한마디로, 우리말 밭드라재나 所等羅嶺 혹은 所冬羅嶺은 ‘같은 말’이다. 당시의 표기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표기’가 나온 것일 뿐이다. 冬이 맞느냐, 等이 맞느냐를 따지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한자 뜻을 해석해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옛 관청에선 이렇게 표기해 놓고 모두 ‘밭드라재’로 읽었다는 것이다.

5. ‘속시’와 束草

이제 ‘속초’라는 지명을 살펴보자. 속새와 속초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지명만 남게 되었다는 주장은 1967년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에 근거한 것이다.

속초는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다.)이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땅이름만 남게 되었다.

속새의 정확한 표기는 ‘속시’이다. 오늘날 ‘ㄹ(아래 아)⁵가 쓰이지 않게 되면서 ‘속새’라고 표기하게 되었다. ‘ㄹ’은 ‘ㅍ’와는 명백히 다른 발음이지만, 오늘날엔 ‘ㅍ’로 대체하는 게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속시’도 현대적 표기로는 ‘속새’로 쓸 수 밖에 없다.

<그림3>과 <그림4>도 역시 <조선지지 자료>의 한 쪽이다. <그림3>에는 강원도 양양군의 동네 지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림4>에는 포구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속초리’라는 지명이 여기에 나온다. 소천면에 속하는 한 동리임이 확인된다.

5 ‘아래 아(ㄹ)’는 ㅍ와 ㅍ의 중간 발음이라고 한다. ㅍ와 ㅍ를 이중모음처럼 발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제주도 방언에 아직 남아 있다. 발음 용례로는, 아들[아도열]아들, 딸[또열] 딸, 똥생이[모영생이]똥아지, 무실[모어실]마을, 7슬[고어슬]가을, 혼저 읍서[호언저 읍서]어서 오세요 등이 있다. (door에서의 모음발음과 유사할 듯하다.)

한글 창제 당시 28자모 중 하나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이 발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ㄹ을 배제한 조선어사전을 출간하고 이후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ㄹ을 뺀 조선어철자법 통일안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말에서 완전히 사라져 현재처럼 24개의 자모만 남게 된다.

식 한자를 구사했지만, 중인 신분인 아전들은 ‘이두식 표기’를 쓰는 통에 고급관리 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짜증이 났다는 말이다. 그러니 고급 한문을 구사하는 고위관리 출신 선비들이 이 일대를 지나다 그 지명을 주민들에게 물어 ‘속식’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음(音)과 훈(訓)을 마구 섞어 쓰는 이두식 표기를 따라 썼을 리가 없다. ‘속식’라는 우리말 지명을 나름대로의 한자식 표기로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속식’을 束沙 束砂 束畬 束寫 束塞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게 된다. 선비들 중 어떤 이는 그 중 ‘束沙’를 선택하고, 또다른 이는 ‘束畬’라고 쓴다. 그걸 두고 ‘모래를 묶는다’느니, ‘집을 묶는다’느니 하는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실제 일부 문헌에서 束沙, 束沙湖, 束沙浦⁶⁾ 등의 지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역시 ‘속식’의 다른 표기일 뿐이다. 음독(音讀)이나 훈독(訓讀)이나, 음가(音假)나 훈가(訓假)냐의 차이일 뿐, 어떤 표기도 우리말 ‘속식’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속식’라는 풀이름을 이두식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독과 훈독을 섞어 ‘속초(束草)’라고 표기했다는 말이다.

6. 속새라는 지명의 분포

전국적으로 ‘속새’라는 풀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을 가진 곳이 14곳이나 된다. 속초시립박물관 김만중 학예연구사가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람』이라는 책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아래는 김만중이 2021년 어느 학술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다.

<‘속초’ 지명의 전국적인 분포 >

우리나라 지명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이름이 곳곳에 존재한다. 속초, 속새 지명도 여러 지역에 보이고 있는데, 그 유래를 보면 우리 속초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유형은 속초라는 지명은 ‘속새’라는 풀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속새는 관다발식물로서 속새목 속새과의 상록양치식물이다. 속초(束草), 최지초(崔只草), 절골초, 목적초로도 불리며, 보통 습한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고 한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 민간에서는 수맥을 이용하여 우물을 팔 때 활용하기도 한다. 안과 및 순환기 계통의 질병에 효력이 있어 이뇨작용, 출혈, 백태, 간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기도 하다.

(가) 속새 [들] 건넌내 북쪽에 있는 들, 속새가 많았음. 1)

6) 束沙라는 표기는 이영택의 <한국의 지명>에 등장한다. 이영택은 이 책에서 “속시 속새를 이두로 속사라 표기한다. 황무지, 원야 등에 나는 속새과 식물을 말한다.”고 밝혔다. 束沙湖라는 표기는 이시선의 <송월제선생집> 「관동록」에, 束沙浦라는 지명은 조병현의 <성재집> 「금강관서」 별집(別集)에 등장한다. (정상철)

- (나) 속새고개 [고개] 음달말 남쪽에서 종전리로 가는 고개, 속새(풀)가 많음. 2)
- (다) 속새골 [마을] 배지미 동쪽에 있는 마을. 속새가 많이 났다 함.3)
- (라) 속새골 [골] 속새라는 풀이 많던 골짜기.4)
- (매) 속새골(속상동) [마을] 식당동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노인봉(老人峯) 밑이 되는데, 속새풀이 많이 있다 함. 5)
- (배) 속새골 [골] 속새가 많다 함. 6)
- (사) 속새둔지 [마을] 성산 앞 둔지에 있는 마을. 속새가 많았다 함. 7)
- (애) 속새매기 [고개] 속새매기 마을에서 두촌면 과석리의 신흥동으로 가는 고개, 속새풀이 많음. 8)
- (자) 속새번데기 [논] 김지 동북쪽 버덩에 있는 논, 속새가 많았음. 9)
- (차) 속새울(속사골, 속사동) [마을] 여차울 동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속새가 많음. 10)
- (카) 속새절골(속새골, 속사곡) [마을] 삼리 창말 북쪽에 있는 마을, 속새가 많고 또 절이 있었다 함. 11)
- (타) 속초동(束草洞; 속새, 속초, 속사곡리) [리] 본래 자인군 중북면의 지역으로서 속새가 많았하여 속새 또는 속사곡리, 속초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속초동이라 하여 경산군 진량면에 편입됨. 12)
- (파) 속초리(속진, 속새, 속초) [리] 본래 양양군 소천면의 지역으로서, 속새 또는 속초(束草), 속진(束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만천동, 우령골을 병합하여 속초리라 하여 양양군 도천면(속초시)에 편입됨. 13)
- (하) 속초리(속새울, 속새골, 이신촌) [리] 본래 홍천군 영귀미면(詠歸美面, 동면)의 지역으로서, 속새가 많으므로 속새울, 속새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고개, 등대, 원개울, 꽃골, 느릅나무정자, 사락골, 소니골, 불근봉을 병합하여 속초리라 함. 14)

- 1)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1985, 120쪽.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 2) 한국지명총람 3(충북편), 1970, 358쪽. '제천군 금성면 양화리'
- 3)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2), 1978, 163쪽. '봉화군 소천면 대현리'
- 4)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453쪽. '춘성군 사북면 인람리'
- 5)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489쪽. '평창군 도암면 병내리'
- 6)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514쪽. '평창군 평창면 원당리'
- 7)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563쪽.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 8)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351쪽. '인제군 남면 어론리'
- 9)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4), 1979, 62쪽. '청송군 안덕면 복리'
- 10)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529쪽. '홍천군 내면 미산리'
- 11)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530쪽. '홍천군 내면 방내리'
- 12)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1), 1978, 130쪽. '경북 경산군 진량면 속초리'
- 13)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173쪽. '속초시'
- 14)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540쪽. '홍천군 동면 속초리'

지난 시절엔 속새라는 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던 듯하다.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지금도 낙동강 강변에는 속새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시대엔 영랑호와 청초호 주변에 속새가 대거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영랑호 동남쪽, 청초호 서북쪽이 바로 ‘속초리’니 이웃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가리켜 ‘속새’라 부를 만하다. 제4대 속초문화원장 김종록에 따르면, 장천마을 사람들은 속초리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소 천하게 여겼으며, 호칭도 ‘속새놈’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속새’라는 호칭이 불과 한 세대 전까지도 쓰였음이 이로써 확인된다.

혹자는, 속초에 늪지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사실을 말하면 지난 시대 영랑호와 청초호 주변은 모두 습지였다. 호수가 점점 메워져 그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을 ‘호수의 노화현상’이라 하는데, 강릉 경포호의 경우 100년 전 지도와 비교하면 그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영랑호 일대도 그러해서, 아주 오래 전에는 장천마을 전답은 물론이고, 지금의 문화회관 일대도 모두 호수였다. 그러던 것이 점점 늪지화되어 농경지로 개간되었다가 훗날 메워져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다. 70년대 현 문화예술회관 자리의 습지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던 기억은 나 역시 가지고 있고, 청초호와 인접한 중앙시장 일대가 장화가 없으면 다닐 수조차 없을 만큼의 진흙탕이었음도 원로들은 증언하고 있다. 현재의 금호동 사무소 앞도 1960년대까지도 습지상태로 남아 있었다. 내가 바로 그 동네 출신인데, 유년 시절 캄캄한 밤이 되면 주위가 적막하고 두려워 아예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현재의 중앙교회가 있는 청학동 일대 또한 습지여서 1970년대만 해도 황무지에 억새풀만이 가득했다.

영랑호의 식생 또한 수시로 바뀐다. 오늘날의 영랑호에서 수초나 조개를 찾기는 힘들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 1960-70년대만 해도 영랑호에서 수영이나 뱃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잦았는데, 그때엔 호수에 ‘마뽀’라 불리는 수초들이 무성히 자랐기에 한 번 물에 빠지면 여기에 휘감겨 헤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헌상으로도 이는 확인할 수 있다. 고려말 안축 선생이 ‘영랑포범주’라는 시를 쓸 때만 해도 영랑호에는 수초들로 뒤덮여 있어 이를 헤치며 가느라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는데 놀잇배로 하루종일 걸렸으며, 그 수초들 중에는 순채라는 식물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42년 8월3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영랑호 천막촌’ 행사와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노란색의 작은 꽃이 영랑호 주변에 무수히 피어 있는데, 그 꽃의 이름을 여행자들이 알지 못해 궁금해 한다는 기사도 있다. 이처럼 식생은 수시로 변하거늘, 이 시대 들어 속새풀이 우리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서, 지난 시대의 식생 상태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속새’는 오늘날처럼 속초시 전역을 지칭하는 지명이 아니라, 영

랑호와 청초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어촌마을을 이르는 지명이다. 즉, 속새풀이 속초 전역에 자랐던 것이 아니라, 영랑호나 청초호 주변 습지에 집중적으로 자랐을 것이고, 그것이 새짜마을·마짜마을·우렁골마을⁷ 등을 통칭하는 지명이 되었다가 속초리의 급속한 확장으로 오늘날과 같이 우리 지역의 대표 지명이 된 것이다.

7. 다른 설명들에 대한 검토

이제, ‘속초’ 지명에 대한 여러 주장들의 근거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차례다.

가) ‘풀을 묶어 놓은 형국’의 솔산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설은 束草라는 지명이 생긴 후에 붙여진 것임에 분명하다. 즉 지명에 맞추어 그 유래를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다. 영금정 옆의 솔산은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 돌산을 깨 방파제를 쌓는데 썼다 한다. 이 산이 온전한 모양으로 있다면 확실히 ‘풀단을 묶어 세워놓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풀단을 묶어 놓은 형상’에서 束草라는 지명이 나왔다면, ‘속식’라는 우리말 지명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속식’을 이두식으로 표기하면 束草가 되지만, 束草를 우리말로 바꾼다고 ‘속식’이 되지는 않는다. ‘풀 묶음’이라 해야 옳다. ‘속식’에서 束草라는 지명이 나올 수는 있어도, 束草에서 ‘속식’라는 지명은 나올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다.

사실 ‘풀을 묶다’는 뜻에 착안하여 그 유래를 설명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삼국시대 이곳에서 전쟁을 하던 신라군이 말을 먹이기 위해 풀을 묶었다는 설에서부터, 울산바위를 풀로 묶었다는 설에 이르기까지 ‘풀을 묶음’ 이유만 찾아내면 그것이 곧 束草의 지명유래가 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 사유로 ‘풀을 묶어’ 束草라는 지명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건 이런 설들이 모두 束草라는 지명이 생긴 후에 거꾸로 그 유래를 갖다 붙인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풀을 묶어’ 束草라는 지명을 설명하는 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

7 속초등대를 중심으로 북쪽은 새짜마을, 남쪽은 마짜마을이라 불렀다. 시청 뒤 롯데캐슬 아파트 자리 가 우렁골 마을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누워 있는 소를 위한 ‘풀단’, 束草

풍수지리상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이 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속초의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 곧 와우형(臥牛形)이어서 소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기 위해 지명을 ‘풀을 묶었다’는 뜻의 束草로 정했다는 것이다.

지형의 불비함을 지명으로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비보(裨補)’는 결함이나 부족함을 채워 보완한다는 의미로 자연적 여건이나 환경에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사상이나 사물을 보태어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보 풍수’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조 수도를 서울로 정하면서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궁궐 문 앞에 해태상을 세운 것도 그 사례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와우형의 지형을 가진 지역이 꽤 많이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 2020년 12월 26일자 손대성 기자의 기사 일부다.⁸

전국적으로 와우형의 지형을 가진 곳은 수십 곳에 이른다. 서울 마포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공주, 전남 장성, 경북 청도, 광주 광산구, 전남 순천, 경남 고성, 경남 하동 등에 널렸다.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과 시흥 대야동, 인천시 남동구 사이에 있는 성주산은 와우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우성이산은 산 모양이 소가 누워 있는 형국, 즉 와우형(臥牛形)이라서 그렇게 부른다. 세종시 연동면 황우산도 산세가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와우형의 지형을 가진 곳이 수십 군데나 된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와우형의 지형에서는 부자가 탄생한다고 한다.

소가 누워있는 모양의 와우형(臥牛形)은 높은 벼슬보다는 부(富)의 발복이 크다. 소는 예부터 부의 상징이며 새끼 수가 적기 때문에 부는 이루되 자손은 귀하다고 해석한다.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동지로 날아오는 형상의 봉황귀소형은 후손 중에 성인군자가 출하며,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형상의 연화부수형은 자손이 모두 고귀하여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금닭이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금계 혹은 봉황포란형이라 하는데 이것은 한 번에 많은 알을 품을 수 있으므로 무리를 이끄는 위대한 호걸이 출하거나 많은 자손을 둘 수 있는 곳이라 해석한다.

주위산세의 모양이 한문글자의 야(也)字 혹은 물(勿)字모양의 형을 갖추면 이름 있는 학자를 출

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072300053>

하며, 주위의 산세가 매실나무 혹은 복숭아의 가지가 늘어져 그 꽃이 땅바닥에 닿아 있는 모양이면 사방에 향기가 퍼져 모든 자손이 크게 발복을 하고, 산세가 장군이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을 한 장군 대좌형은 훌륭한 무사가 나온다.

그러나 모든 물형론은 혈장 앞에 그와 걸 맞는 짝이 있어야 진혈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와우형(臥牛形)은 혈장 앞에 소의 먹이가 되는 곡식이나 풀 더미 모양의 안산이 있어야 하고, 장군대좌형은 주위에 병사를 뜻하는 작은 바위들이나 말을 뜻하는 천마사(天馬砂)등이 있어야 진혈이 된다. 이외에 배가 물위에 떠있는 모양의 행주형은 주로 양택지로 적합하며 큰 부(富)를 이룰 장소로 양택지로서는 대길지로 해석한다.⁹

위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속초의 지형이 와우형이긴 하나, 소의 먹이가 되는 ‘풀 더미 모양’의 안산이 없기에 束草라 이름 지어 비보(裨補)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속초의 지형이 정말 와우형인지를 따질 차례다.

현재의 속초는 고층건물도 대거 들어서 있고 언덕이나 야산이 대부분 깎여나간 상태이므로 도무지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현재의 지형에서 소의 형상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보통 풍수지리에서 와우형은 소의 머리와 뿔, 코, 꼬리, 젖, 눈썹 등에 해당되는 지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어디가 머리에 해당되고 어디가 꼬리에 해당되는지, 뿔, 코, 젖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설명하는 이는 본 적이 없다. 정녕 와우형이라면 일찍부터 양택이나 음택으로 활용되어야 옳음에도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¹⁰

더욱이 근래에 이르러서는 터무니없게도 청대산이 와우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들까지 생겼다. 설령 청대산이 와우형이라 하더라도 속초라는 지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속초리’는 13동제¹¹ 기준으로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일대를 일컫는다.¹² 청대산은 이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청대리’와 ‘도문리’에 위치해 있

9 <http://m.srbsm.co.kr/view.php?idx=24651>

10 실제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는 ‘와우리(臥牛里)’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 있다. 와우리는 삼인산(三人山)과 인접해 있는데 그 산의 한 봉우리 이름이 ‘속초봉(束草峰)’이다. 인근에 나주 오씨 집장지가 있다 한다.

11 속초는 시 승격 직후엔 12개 동, 1973년 이후 1998년까지는 13개 동(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호동 청학동 교동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98년 이후 장사 영랑이 합쳐져 영랑동으로, 중앙 금호가 합쳐져 금호동으로, 청학동이 해체되어 교동과 노학동으로 분산 흡수되고, 대포 도문 설악이 합쳐져 대포동으로 통폐합되어 8개 동이 되었다.

12 주지하다시피 1937년 속초리에 면사무소가 들어서면서 그 명칭이 속초면이 되고, 그 상태로 도시가 팽창하여,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했다. 속초문화원이 발간한 일부 자료집(‘옛 문헌으로 본 속초’ 등)에 1942년 작성되었다며 속초읍 5리, 6리까지 표시된 지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우선 ‘응골’이 상도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부터 명백히 잘못되었다.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될 당시는 본래의 속초리에서 크게 영역이 확대되어 4개리로 확장된 상태였다. 5리(청호동)와 6리(청학동, 교동)는 전쟁 후 실항민들에 의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해짐에 따라 속초리로 편입된 지역이다. 5구인 청호동에는 전쟁 전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그저 백사장이자

다. 남의 마을 지형으로 우리 마을 이름을 지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실 ‘속초리’의 지형이 와우형이라 하더라도, 소가 되새김질하는 습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굳이 속초라는 지명을 붙여 ‘비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이런 사실을 망각했을 리가 없다. 소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되새김질을 한다. 부자들도 그러하다. 일하지 않고 그냥 어슬렁거리는 데도 수입은 계속 들어온다. 와우형에서 부자가 난다는 속설은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속초라는 이름을 얻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부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속초리’의 지형이 와우형이 아님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¹³

또한 그렇게 해서 束草라는 지명을 얻은 것이라면, 이 역시 ‘속식’라는 우리말 지명의 유래를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아마도 어설피 풍수지리 지식을 가진 이들이 束草라는 지명에 맞춰 억지춘양으로 끼워 맞춘 것이리라 여겨진다.

다) 풀로 묶은 울산바위

설악산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새로 끈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새로 끈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자로 ‘묶을 속(束)·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이 울산바위 유래설은 문화해설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야기가 흥미로운 데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산바위는 울산에서 오지 않았다. 울산바위는 ‘울산에서 온 바위’라는 뜻이 아니라, ‘울타리 모양의 바위산’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문헌에는 ‘울타리 리(籬)’를 써서 籬山이라 한다.¹⁴ 이론(異論)이 있긴 하지만 ‘울린다, 운다’라는 의미의 ‘울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天候山으로 불리기도 한다.¹⁵

도로였을 뿐이다. 단지 청호동 남쪽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는 군수품인 정어리통조림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고, 전쟁 때에는 간이 활주로로 쓰였다. 6구인 청학동과 교동 일대 역시 그저 야산이었을 뿐이다. 본래의 속초리는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인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일대였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은 전쟁 후 실향민이 몰려들기 전까지 그저 야산과 농경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 13 와우형의 지형을 가진 마을에서는 오히려 소가 별떡 일어날까봐 이를 진정시키는 제례를 지내고 있다 한다.
- 14 속초지명유래(1987년, 속초문화원) 울산바위 편 참조.
- 15 고성문화원에서는 천후산이 울산바위가 아니라 신선봉 옆의 다른 산을 지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운론적으로 고찰해보면 본래 이름은 아마도 ‘울뫼(울메, 울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 ‘뫼(메, 미)’라는 우리말이 사라지고 ‘산’이라는 한자어로 대체¹⁶ 되면서 ‘뫼’비둘기가 ‘산’비둘기가 되고 ‘뫼’돼지가 ‘산’돼지가 되더니 이윽고 울‘뫼’도 울‘산’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자 울산이라는 도시의 지명과 같게 된다. 이후 ‘울산에서 온 바위’로 오해받게 된 것이다.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해 갔다”라는 내용의 설화를 통칭해 ‘이동 설화’라 한다. 경동대학교 김경남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이런 이동설화는 50여 종이나 있다 한다. 원주 섬강에도 이런 전설이 있다. 홍수 때 양평에서 떠내려 온 섬이 있었는데 매년 양평군수가 세를 걷어갔고 이때 현명한 원주 처녀가 지혜롭게 이를 물리쳤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울산바위 전설과 대등소이하다.

돌아보면 우리의 울산바위가 굳이 울산에서 와야 할 이유가 없다. 부산 마산 서산 용산 성산 왕산 등 ‘산’자 들어간 마을이 무수히 많은데 왜 하필 울산에서 와야 했겠는가. 강 한가운데의 섬은 홍수 때 휩쓸려 하류에 다시 형성될 수 있다지만,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이동해 올 수 있겠는가. 그러하니 지명이 먼저 생기고 난 후 전설이 만들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다른 지역에서 떠도는 전설을 적당히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속초리’는 영랑 동명 중앙 금호동 일대 해안지대를 지칭하는 지명이고, 울산바위는 그 반대 산악 쪽에 자리하고 있다. 남의 마을 전설을 왜 우리 마을 지명으로 가져다 쓰겠는가. 속초의 지명 유래를 울산바위 전설에서 찾는 건 그야말로 연목구어라 할 것이다.

8. ‘속시’, 속초의 순 우리말 이름

음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속시’라는 순우리말에서 ‘束草’라는 한자 지명이 발원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속새풀에서 속초라는 지명이 발원했다는 설명에 불만족해 한다. 뭔가 좀더 산뜻하고 명료한 설명을 기대한다. 속초라는 이 위대한 도시가 고작 초라한 풀이름에서 비롯되었다니 도무지 석연치 않다. 속초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속초’라는 지명에 중량감 있는 사유가 깃들여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곳처럼 풍수지리적으로 헤아려 얻은 이름이라거나, 그럴 듯한 설화라도 지니고 있다면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요즘은 문화해설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향토사 강좌가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더더욱 그럴 듯한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

16 우리말 ‘7꺾’은 중세 때 사라져 ‘강’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됐으며, ‘산’을 뜻하는 우리말 ‘뫼’는 18세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사라졌다. <훈몽자회>가 발간될 당시만 해도 ‘뫼’라는 우리말이 쓰이고 있었다.

그건 사실, 지난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에 구성된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초기 멤버들이 바로 그러해서, 그들은 속초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풀이름에 유래한 설명 따위는 과감히 버리고, 발전지향적인 지명 유래를 설명하려 시도했는데, 박O훈 김O우 등의 인사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김O록 주O훈 등의 인사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와우형’이니 ‘풀단을 묶는다’느니 하는 주장들은 이 무렵에 생성된 것들이다.

주장하건대, 束草는 ‘속식’라는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하면서 생겨난 지명이다. 옛 문헌에 한글 이름보다 한자 이름인 束草라는 지명이 먼저 등장한 것은, 그 무렵엔 한글로 지명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수백년동안 ‘속식’라 불리었다. 그러다 ‘속초리’로 면 소재지가 옮겨 오면서 ‘속초면’이 되자, 이때부터 이 도시 전체 주민들이 ‘속식’보다는 ‘속초(束草)’라는 한자 지명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윽고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새로 전입한 주민들은 ‘속초’만을 도시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속식’가 잊혀지고 ‘풀을 묶는다’는 의미가 생성되자, 거꾸로 이에 맞춰 갖가지 유래들이 붙여진다. 풍수지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이웃 도시에서 옛들은 설화를 슬그머니 옮겨놓기도 한다. 본디 구전설화라는 것이 그러해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덧붙여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 속초 지명과 관련된 설화들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다.

비록 사실(fact)이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풍성한 설화들이 생산되고 있음은 굳이 말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의욕 있는 향토사학자들이 더 이상 “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 아래, 속초 지명의 근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캐보려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미흡한 고증을 바탕으로 제멋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특히 향토사 교육 강사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대중에게 함부로 전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기대에 다소 어긋나긴 해도, ‘속식’라는 순우리말에서 ‘束草’라는 한자 지명이 나왔음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다. 지명 연구에 있어 지리학이나 국어학 전공자들의 참여로 이 주장이 좀더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속초문화

이 그림의 소재가 된 책장은 제 진료실에 있는 책장입니다.
책장 속의 책들은 50여년을 저와 함께 지내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더불어 열공도 하였고
또한 제가 외과의사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학서적은 전문분야 책들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난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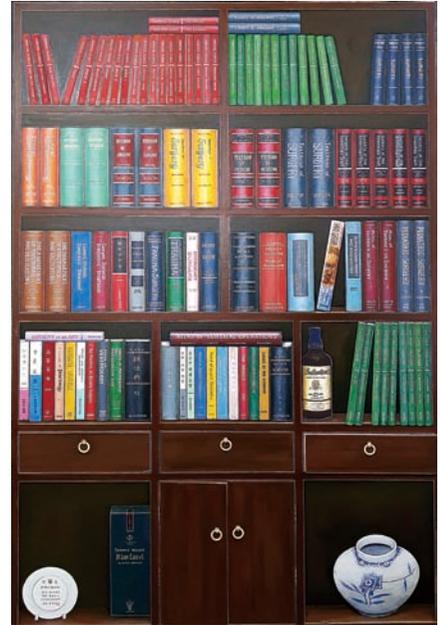
의학서적들은 외관이 앤티크(Antique)하면서도
다양한 색상들은 조화를 이루며 모던(Modern)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반평생을 함께 한 이 책장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가슴에 품어 왔었는데 마침내 작업을 이루었습니다.

진료실에 있는 책장은 친근감이 있어
저의 일부를 접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작업 할 수 있었습니다.

책속의 원래 저자 이름을 사랑하는 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그려 넣어 당신을 추억할 수도 있었습니다.

- 작가노트에서 -



책장 •130.3×97.0cm •Oil on canvas



김봉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졸업, 의학박사, 외과전문의
- 2017 의인미술대전 최우수상 (대한의사협회)
- 2011 대한민국 선정작가 (미술과 비평가)
- 2011 의인미술대전 특선
- 2010 경향미술대전 특선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김봉수외과의원 원장

속초시 중앙로 108번길 87 김봉수외과의원
M. 010-8791-1504 E-mail. kbs6633@naver.com



김혁진 작 • 청대산의 자유 • Watercolor on paper



정봉재 작 • 속초 중앙시장 반건조 생선 • Watercolor on paper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 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물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축협
-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지부장 마 상 일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속초농협**이 되겠습니다.

- | | |
|--------------------|--|
| <p>신용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대출, 보험 • 카드, e-금융 |
| <p>경제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로마트, 주유소 • 구매, 판매 • 가공사업 |

<p>속초농협 본점 : 633-1501~5 속초농협 조양지점 : 635-1881 속초농협 엑스포지점 : 630-1580 경제사업소 : 633-1506~7 하나로마트 엑스포점 : 630-1500, 속초농협 클린주유소 : 636-1680</p>	<p>속초농협 중앙지점 : 636-2571 속초농협 북주지점 : 631-9500 가공사업소 : 636-0558 농기계수리센터 : 631-5545 중앙시장점 : 633-1508</p>
--	--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발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

비매품/무료

